

# 우리네 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2 11/12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  
FAX : 2275-8506  
e-mail: kda@chollan.net  
홈페이지: www.kda.or.kr

##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아든 여아이든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자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골채 있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피털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월간 90호 2002년 11/12월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

등록이 이경녀, 김희정/펴낸날 2002년 11월 15일

|    |             |                                 |     |
|----|-------------|---------------------------------|-----|
| 2  | 권두언         | 보육과 정치                          | 조현욱 |
| 4  | 보육정책        |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보육정책               | 편집부 |
| 8  | 특집 1        | 북한의 취학전 양육제도                    | 편집부 |
| 14 | 특집 2        | 내 조국의 반쪽 땅에서 만난 북쪽여성과 아이들       | 김명선 |
| 24 | 보육재민        | 남자아이들 더 좋아한다구요?                 | 서정은 |
| 31 | 현장교육 1      | 자연과 하나되는 로빈훗 산책                 | 김현정 |
| 39 | 현장교육 2      | 더덕과 한사랑 어린이집의 통합수업              | 정혜정 |
| 41 | 현장소식 1      | 바람 불어도 거리문화제는 계속 된다             | 김계임 |
| 42 | 현장소식 2      | 거리문화제를 마치고...                   | 임미화 |
| 43 | 현장소식 3      | 모두가 함께 준비한 거리문화제                | 김영금 |
| 44 | 현장소식 4      | 양성평등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보육교사 의식개선..... | 김금자 |
| 45 | 현장소식 5      | 아빠들에게 육아 참여의 기회를!               | 안미경 |
| 46 | 현장소식 6      | 부드러움과 당당함을 함께 지니길...            | 황호정 |
| 48 | 전문가 제언      | 아이들의 생활환경 꾸미기                   | 황영현 |
| 55 | 인물탐방기       | 이원경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 김진희 |
| 58 |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 아기자람터 아이들의 이야기                  | 박천주 |
| 60 | 아이들과의 하루    | 하나로 사는 세상을 위한 아이들               | 이상옥 |
| 63 | 육아일기        | 소현이의 먹거리                        | 전경숙 |
| 65 | 좋은 그림책소개    | 그림 옷을 입은 집                      | 고영미 |
| 67 | 세상읽기        | 너들이 통일을 알아?!                    | 이연희 |
| 68 | 새로운 세상과 만나기 | 알구리가 시리십니까?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들-     | 이윤경 |
| 71 | 목소리         | "보육교사 연구수당"에 대하여                | 편집부 |
| 72 | 알림          |                                 | 편집부 |
| 74 | 보육계풍향       |                                 | 편집부 |
| 76 | 소식과 소식      |                                 | 편집부 |
| 81 | 편집부에서       |                                 | 편집부 |

## 보육과 정치

조현옥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정치학박사

12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이야기가 화제로 많이 떠오른다. 어떤 대통령이 선출되는가는 꼭 정치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화제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그룹이 있다면 바로 여성들일 것이다. 여성들은 모이면 다양한 화제가 끊이지 않지만 정치이야기는 아예 상머리에 화제로 오르지도 않고 어쨌든 이야기가 나와도 썰렁하게 끝나 버리기 일쑤이다. 그 이유는 정치가 남성의 일이라는 전통적인 고정관념 때문이기도 하고, 둘째는 정치가 지저분하다는 거부감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상하다는 사람들일수록 "나는 정치는 싫어해"라며 멀리한다. 이는 해방 이후 부정부패로 얼룩져 온 우리 정치 역사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럽고 썩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도 된다면 그 또한 무방하지만, 정치는 우리의 실생활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들의 손해이다.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것이 통일이나 외교 등의 커다란 일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문제, 물가, 교통문제, 여성복지 등 실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일들이 많다. 심지어는 수해가 있으면 수해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상금을 얼마나 주어야 할 것인가가 모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일들이다.

우리는 보통 보육이라고 하면 여성들의 일로만 생각을 한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여성들이고 또 보육교사를 역시 대부분이 여성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육문제는 여성들끼리 짚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치부하고, 정치권에서 보육에 관한 예산을 늘리거나 혜택을 줄 때는 마치 여성들에게 큰 선심이나 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보육은 여성들만의 일이 아니다. 현재는 사회의 중요한 인력자원인 여성들을 활용할 때 중요하게 지원되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고 갈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의 아이들을 제대로 생산해 내지 못하고, 또 키워내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노동력이 모자라 외국에 얻으러 다니는 사태가 발생하고 결국 한국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다. 즉 보육문제는 여성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장래가 달린 중대사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육은 정치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우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개인 여성들에 대해 어떠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인가, 또 사회적 지원책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지원책으로서 보육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앞날을 재단하는 정책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를 점유하고 있는 남성정치인들은 절대 스스로 이러한 보육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까지 여성들을 달래기 위한 주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 책임의 일부는 남성정치인들이 이처럼 행동해도 항의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여성들과 보육교사들에게도 있다.

이제 보육문제는 한 가정의 개인적인 부담이 아니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중요 정책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약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여성들과 보육교사들의 활약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알아서 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중요사안으로 부각시키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는 정치권에 대한 작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우리는 정치세력화작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정치세력화라고 하면 말 자체도 무시무시하고 마치 권력을 탐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할당된 몫을 가져오는 일들이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포기하고 있었던.

### 보육정책의 주요과제

보육정책의 주요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다. 보육교사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인력이다. 그러나 현재 보육교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월급이 낮고, 근무시간이 길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보육시설의 확충이다. 현재 보육시설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족의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이다. 현재 보육서비스는 주로 어린이집을 통한 집단보육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에 따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

#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보육정책

- 보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

정리 편집부

## ☞ 들어가며

대선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살림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일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보육문제가 사회이슈로 다루어지면서 대선 후보들의 보육공약에도 이전보다 훨씬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성운동단체들이 대선을 준비하면서 만든 대선여성연대의 주요 핵심 3대 과제중의 하나도 보육의 공공성 확보이다.

국가의 정책은 최고책임자가 어떤 가치관과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보육문제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 동안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보육교사회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 올바른 보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이 내용은 지난 9월 30일에 있었던 "각 정당 초청 대선 공약 보육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문 형식으로 발표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보육정책은 아동복지, 교육, 여성정책, 노동정책 등의 문제와 포괄적인 측면에서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한다.

보육문제는 단지 일하는 여성의 육아문제만이 아니며, 가정의 역할을 어쩔 수 없이 대리하는 차원의 문제만도 아니다. 아동의 출산과 양육의 전 과정을 어떻게 사회와 가정이 나누고 책임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 ☞ 포괄적인 양육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아동양육과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면 출산정책, 모성보호관련정책, 육아지원정책인 보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정책은 그 동안 인구정책이나 여성정책의 범주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사실상 출산과 육아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된다고 할 때 국가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보육은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양성평등한 육아문화를 확대하여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되어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아보육의 경우 단순히

시설확충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의 확대와,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의 확대를 통해 부모됨의 권리와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출산과정에 대한 지원은 산모의 건강권 문제만이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검진, 장애아 조기발견 시스템의 마련과 적절한 지원체제로 연결되어야 하며, 보육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만이 아니라 가정의 양육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의 구성 등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결되어야 한다.

핵가족화와 저출산의 문제는 아동양육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가족성원 내에 양육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고 지역에서도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모는 양육에 대한 조언이나 지원을 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하는 부모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양육의 문제가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보육시설은 맞벌이 가정의 아동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양육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을 요구받게 된다. 또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에 봉착한 일본의 경우 1995년부터 추진된 엔젤플랜의 구체적 목적으로 ①母的 취업 중 아동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②가정에서의 아동양육지원, ③아동양육에 유리하게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④부모의 아동양육 비용 감소 등을 두고 있다.

일본이 양육지원책으로 내놓은 엔젤플랜의 목표에 성별분업의 철폐, 주거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육의 문제가 단지 일하는 여성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양육지원정책은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 규모, 상황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강조하고 가족친화적 고용 및 사회전반에서 성평등을 강조하는 각종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는 유급육아휴직제, 유급모성휴직제, 가족수당, 아동수당,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아동보호시간연장, 방과후 아동보호 확대, 교육 및 주택 보조, 세금감면,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자녀양육의 양성분담을 위한 제도 등이 포함된다.

## ☞ 보육정책의 주요과제

포괄적인 양육지원체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오늘의 주요 주제인 보육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주요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공공성 확보
2. 서비스 질 향상
3.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4. 이를 위한 효율적인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 구축

공공성 확보는 보육서비스가 선택적 소비상품이 아닌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라는 것을 확실히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제도 자체가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과, 비용에 있어 공공성을 담보할만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서비스 질 향상은 보육의 질이 결국 아동양육환경의 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질은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물리적 환경과 인적환경의 개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는, 보육이 아동을 통해 가족복지에 기여해야 하며 또한 그러했을 때만이 건강한 아동양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정부에 보육과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지역단위 행정체계까지 전담부서, 또는 전담 인력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보육이 포괄적 양육지원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내에도 부처간 협력체계 마련과 각 부서별 여성정책담당관들의 연계, 정부정책의 일관성 있는 계획과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세부과제별 정책방향

### 1. 양육지원의 공공성 확보

- ① 차등보육료 제도의 도입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 비율 확대
- ②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이 전체 보육아동 중 50%이상 수준이 되도록 확대
- ③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애아에 대한 보육비용 지원
- ④ 출산수당 지급 및 의료서비스 강화 - 여성의 출산을 특별한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고 임신기간 중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혜택 강화
- ⑤ 아동 건강권에 대한 지원 - 모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무료 건강검진 실시
- ⑥ 특수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특수보육 확대
- ⑦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 개정 및 정비

### 2. 서비스 질 향상

- ① 가정의 필요와 아동의 조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와 보육형태 마련 - 야간, 휴일, 시간제, 일시, 긴급 보육서비스와 영아, 방과후 등 대상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
- ② 평가인증제 도입
- ③ 보육환경 개선 -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하향조정, 보육시설 설비·물품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 보육실 면적 확대와 연령에 맞는 필요 공간 확보,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재배치, 시설설치 시 필요한 주변환경에 대한 기준마련

- ④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 채용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양성과정 정비 및 자격제도 도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 확대·강화.

- ⑤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지역 보육위원회에 부모, 보육교사, 지역주민의 참여 보장하고 자료 공개

### 3.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 ① 지역사회자원간 네트워크 형성과 이를 위한 정보센터의 활성화
- ② 지역주민의 아동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보육시설, 복지관, 청소년 회관, 주민단체, 관련기관, 기타 교육시설의 이용 가능한 물리적·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리 체계를 마련
- ③ 지역사회가 양육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 회복
- ④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 및 사회분위기 마련

### 4. 효율적 행정체계의 마련

- ① 중앙 차원의 관련 부서간 협의·협력 체계 마련 - 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교육부, 문화부, 기획예산처 등
- ② 시·군·구까지 보육전담공무원 확보 / 보육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

## 마치며

이제 우리의 요구를 걸고 대선 주자들의 보육공약을 점검해보자. 관점과 방향, 실현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자. 그리고 앞으로 5년의 보육정책을 이끌어 갈 사람을 제대로 골라내자.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듣지 않을 수 없도록 목소리를 내자. 아주 큰 목소리로 보육의 발전을 위해 외치자.

## 특집1



## 북한의 취학전 양육제도

정리 · 편집부

지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북한 금강산에서 '2002남북여성통일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남북여성통일대회'는 1991년과 199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분단 이후 최초로 민간교류의 물꼬를 튼 이래 10년을 넘기며 본격적인 남북여성교류가 재개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남북여성통일대회에서는 보육이 부문별 토의주제 중 하나로 상정되어 남북한 대표들이 보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도 있었다. 본회에서는 이기원 공동대표를 비롯 총 4명의 일꾼들이 한국보육교사회를 대표하여 참가하였다.

「우리네 아이들」에서는 본회 북한방문단의 방문보고를 실으면서, 아울러 북한의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양육제도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아쉬운 것은, 북한관련 자료가 드문 관계로 접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객관적으로 북한의 아동 관련 제도와 실상들을 살펴보기에는 다소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을 「우리네 아이들」독자들이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주었으면 한다.

### 1. 북한의 취학전 양육제도와 관련된 제도 및 법규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법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탁아(편집자 주 : 북한에서는 '탁아소'라는 명칭을 쓰는 관계로 북한의 보육은 '탁아'로 칭하도록 한다)와 교육을 규정하는 단일체제법으로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존재한다. 이 법은 1976년 4월 29일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197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장의 10개 조항에서는 법의 기본 취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모든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역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북한의 취학전 아동양육체계가 아동에게는 혁명정신 계승의 사상교육체계로서, 여성의 아동양육부담에서의 해방을 통한 사회참여 확보

로 작용하도록 하여 사회의 혁명화, 노동화를 꾀하려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제2장 11개 조항에서는 어린이를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와 사회에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탁아소/유치원의 설비와 놀이터 및 놀이감에 대한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의 책임, 식량과 생활필수품 공급을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산전산후휴가의 보장과 식량, 젖먹이는 시간, 노동 단속 등의 규정을 두어 자녀를 가진 어머니를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제3장의 7개 조항은 국가는 어린이를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워야 하며, 집단보육규범과 위생, 영양 등 어린이의 생활환경을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와 건강보호의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외에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탁아소의 보육원과 유치원 교양원들의 위치와 임무, 보육교양기관들에 대한 지도 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등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

### 2. 북한의 취학전 보육/교육내용

앞서 어린이보육교양법의 목적에서 볼 수 있었듯이, 북한의 취학전 양육기관은 탁아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여성이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한편 아동의 사상교육을 담당한다.

북한은 아동연령에 따라 출생 1개월에서부터 만 3세까지의 아동은 탁아소를, 만 4-5세 어린이는 유치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단편성도 어린이들의 나이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즉 탁아소는 젖먹이반(1개월-6개월), 젖떼기반(7개월-48개월), 교양반(19개월-36개월), 유치원 준비반(37개월-48개월)으로 구성되며, 유치원의 경우에는 낮은 반(4세), 높은 반(5세)으로 구분된다. 높은 반은 북한의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다. 따라서 탁아소와 유치원 낮은 반의 이용여부는 자유이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노인이 없는 한 탁아소나 유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70% 정도만 유치원에 다니고 30% 정도는 무보호상태에 있으며, 시골이 교원 부족 등으로 더 심각한 실정이고, 탁아소와 유치원이 함께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의 최상유치원의 경우, 규모는 본원 400여명, 분원에 100여 명 등 총 500여 명의 유아들과 30여명의 직원, 20여 명의 교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김일성?김정일 연구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낮은 반의 경우는 20명씩 높은 반은 30-35명씩으로 반이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은 일탁아소/유치원(아침에 맡겼다가 저녁에 데려가는 형태), 주탁아소/유치원(월요일에 맡겼다가 토요일에 데려가는 형태), 월탁아소/유치원(1개월간 맡겨두는 형태)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일과표에 따라 운영된다. 탁아소의 경우에는 주 탁아소가 주류를 이루며, 유치원의 경우에는 일 유치원이 주가 되고 있다.

북한 탁아소의 교육내용은 생후 1년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시작하는데 일탁아소의 일과표는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 일 탁아소의 일과표 (생후 18개월~3살까지의 유아 대상)〉

| 순서 | 시간          | 활동내용         |
|----|-------------|--------------|
| 1  | 07:00~08:00 | 아동수용(집에서 식사) |
| 2  | 08:00~08:30 | 유희 및 교수      |
| 3  | 08:30~09:00 | 손을 씻고 식사하기   |
| 4  | 09:00~09:30 | 산책준비         |
| 5  | 09:30~11:00 | 산책하기         |
| 6  | 11:00~11:30 | 손을 씻기(화장실)   |
| 7  | 11:30~12:30 | 점심식사하기       |
| 8  | 12:30~13:00 | 낮잠 준비        |
| 9  | 13:00~15:00 | 낮잠 자기        |
| 10 | 15:00~15:30 | 손을 씻기(화장실)   |
| 11 | 15:30~16:30 | 식사하기         |
| 12 | 16:30~19:00 | 산책, 유희 및 교수  |
| 13 | 19:00~19:30 | 귀가           |

출처: 김동규(1990),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유치원의 운영시간은 아침 6시 30분부터이며, 오후 4시 30분 정도에는 아동들이 귀가하게 된다. 이 수업에서는 낮은 반과 높은 반이 각각 다른 수업단위로 진행되고 높은 반에는 주요 과목에 대한 교과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새참시간은 하루에 두 번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식량난으로 인해 한 번 정도로 주어져서 그나마 새참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점심식사의 경우는 부모들이 밥값을 내어 해결한다.

유치원 형태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일유치원의 일과표에 대한 예는 〈표〉와 같다.

〈표 2 - 일유치원의 일과표〉

| 순서 | 시간          | 활동내용      | 순서 | 시간          | 활동내용    |
|----|-------------|-----------|----|-------------|---------|
| 1  | 06:30~08:00 | 어린이 맞이    | 10 | 11:00~12:00 | 자유시간    |
| 2  | 08:00~08:15 | 아침체조      | 11 | 12:00~13:00 | 점심시간    |
| 3  | 08:15~08:35 | 교양사업      | 12 | 13:00~15:00 | 낮잠시간    |
| 4  | 08:35~08:45 | 교실로 들어가기  | 13 | 15:00~15:10 | 낮잠 정리정돈 |
| 5  | 08:45~09:00 | 방송듣기      | 14 | 15:10~15:30 | 낮체조     |
| 6  | 09:00~09:30 | 휴식        | 15 | 15:30~16:00 | 교사 자유시간 |
| 7  | 09:30~10:00 | 수업        | 16 | 16:00~16:15 | 총화시간    |
| 8  | 10:00~10:30 | 휴식 및 새참시간 | 17 | 16:15~16:30 | 새참시간    |
| 9  | 10:30~11:00 | 수업        | 18 | 16:30~      | 집에 돌아가기 |

출처: 최민수(1996), 「북한의 취학전 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유치원은 8월 30일까지 입학식이 끝나고 9월 1일부터 새학기의 하루일과를 시작하는데, 탁아소에 비하여 훨씬 규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업시간은 교수안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1일 2시간 수업으로 6일간 수업함)씩 진행되며, 다양한 교과목을 계획에 따라 번갈아 교수하고 있다.

〈표 3 - 북한의 유치원 교육과정 편제(1997년 3월 현재 추정자료)〉

| 과목명                   | 구분<br>총시간수 | 낮은반 |     | 높은반 |     |
|-----------------------|------------|-----|-----|-----|-----|
|                       |            | 전반기 | 후반기 | 전반기 | 후반기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 80         | 20  | 20  | 20  | 20  |
| 친애하는 령도자 김일성 원수님 어린시절 | 80         | 20  | 20  | 20  | 20  |
| 우리말                   | 120        |     |     | 60  | 60  |
| 셈세기                   | 80         |     |     | 40  | 40  |
| 노래와 춤                 | 280        | 80  | 80  | 60  | 60  |
| 그리기와 만들기              | 80         |     |     | 40  | 40  |
| 체육                    | 160        | 40  | 40  | 40  | 40  |
| 놀이                    | 240        | 80  | 80  | 40  | 40  |
| 관찰                    | 80         |     |     | 40  | 40  |
| 계                     | 1,200      | 240 | 240 | 360 | 360 |

출처: 박노의 외(2000), 「유아교육과정」, 문음사

북한의 취학전 교육내용은 정치사상 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학교교육의 기초가 되는 지적교육, 정서교육, 체육교육을 과목별로 구분하고 있다. '혁명적인 인재의 양성'이라는 북한 교육이념에 따라 정치사상교양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된다. 정치사상 교양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지적교육을 위해서는 '우리말', '셈하기', '관찰', 정서교육을 위해서는 '노래와 춤', '그리기와 만들기', 그리고 체육교육을 위한 '체육'이 있다.

북한 유치원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정해진 목표점에 반드시 도달해야만 하는 결과지향적 목표를 지닌다는 점이다. 북한 유치원에서의 평가는 어린이의 경험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전에 목표로 설정한 교육내용의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양원은 어린이들이 활동을 경험해 나가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

보통 한달에 한번 정도 유치원의 본과장이 월 과정안 검열을 하며 행정기관의 교육부서 지도요원은 6개월에 한번씩 유치원 전체의 학기과정안을 검열한다.

### 3. 교원 양성 및 재교육

#### 1) 교원양성제도

북한의 유아교육 교원은 탁아소를 담당하는 보육원과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양원으로 구분된다.

북한에서 유치원 교양원이 되려면 전국 각 시·도·군에 2개씩 설치되어 있는 3년제 교원대학 교양원 과정을 나오거나 전국 시·도·군에 설치되어 있는 교양원 양성소와 통신교육체계 등을 나오면 교양원이 될 수 있다. 이 중 도 교양원 양성소를 나오면 자격증이 부여되지만, 시·군의 양성소에서는 임시 자격증을 부여한다. 북한에서도 도시에는 유치원 교양원이 넘치지만 농·어·산촌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임시 자격증 소지자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교원대학 3년과정을 거친 교양원과 교양원 양성반 1년과정을 거친 교양원간에 자격이나 월급에는 차이가 없으나, 교원대학 출신자에 비해 양성반을 나온 교원에 대해서는 다소 인정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탁아소 보육원의 양성은 1959년 이래 중앙의 보육 전문학교와 공장, 기업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 양성소인 '보육원학교'에서 주간 3개월 과정, 야간 6개월 과정으로 양성되었으며, 그 밖에 시·군 보육원 양성소, 통신교육체계, 단기 강습소 등 비정규과정에서 양성되어 왔다. 탁아소 보육원을 위한 양성과정에서는 보육학, 위생학, 영양학, 생리학, 아동심리학을 비롯한 보육교양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익힌다.

## 2) 재교육제도

보육원의 재교육은 주로 시·도·군에 조직되어 있는 보육원 이동강습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보육원 이동강습대는 보육경험이 많고 정치실무가 준비된 일군으로 조직된, 보육원들의 자질을 높여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상설적인 기관이며 보육 교양사업에 대한 기술적 실무적 지도기관이다. 또한 보육원 이동강습대는 해당 지역 내의 보육원들에 대한 자질 향상사업과 지도 및 통제 뿐 아니라 국가자격 시험을 조직하고 집행한다. 특히 보육원 이동강습대는 탁아소를 찾아다니며 보육원들을 강습하기 때문에 근무지에서 정상 근무를 하면서 강습을 받을 수 있다.

교양원 재교육은 교양원 양성대학과 시·군 교양원 양성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도·군에 조직되어 있는 교수강습대가 매년 정기적으로 교수강습을 진행하며 교양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취하고 있다. 그 밖에 교양원들은 유치원 내에서 주·월별 발표회에 참석해야 하며, 간부는 수요 강연회, 토요학습, 매일자습 등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원장과 분과장은 교양원의 수업참관을 의무화하고 있어 항상 교양원의 구체적인 지도에 임하고 있다.

그밖에 통신교육을 통하여 무자격 교양원을 자격 교양원으로 유도하는 교육, 경험 교환회, 시범, 견학, 잡지 및 도서 공급 등으로 현직 보육원과 교양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 4. 지원체계 및 취원 현황

유치원은 중앙의 '보통교육부 유치원인민학교지도국'과 지방의 시·도·군 '교육부서'에서 담당하고, 탁아소는 중앙의 '보건부 탁아소지도국'과 지방의 시·도·군 '보건부서'에서 담당한다. 한편, 농업 부문의 탁아소와 유치원은 중앙의 '농업위원회'와 지방의 '군 농업농장경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어린이보육교양법' 제12조에 명시된 대로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으며, 탁아소, 유치원, 협동농장의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구분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 중앙의 탁아소와 유치원은 중앙예산으로 지원되고, 시·도·군의 탁아소와 유치원은 지방예산으로 지원되며, 농업부문의 협동농장의 탁아소와 유치원은 협동농장의 공동소비자금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 5. 정리하며

북한의 아동양육체계에 대해 간단히 훑어보았다. 북한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인 아동을 공산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형으로 교육하는 장치로서 탁아소와 유치원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이념적 의도는 집단적·결과지향적 교육과정으로 드러난다.

한편, 남한과 비교하여 볼 때 남한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구분되어 있듯 북한은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남한의 경우 두 기관의 대상연령이 중복되는 것과 달리 북한은 연령에 따라 담당기관을 구별하고 있다. 관리운영 형태에서도 남한은 주로 시간을 중심으로 반일제와 종일제, 24시간 보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북한은 시간과 기간을 중심으로 며칠씩 기숙하는 형태의 유아교육기관이 대부분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없고, 동일 연령별 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실정에 따라 혼합연령/동일연령을 정하는 남한과 다르다. 공산주의체제에서 사회적 아동양육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 사회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사회에서 양육되는 아동들이 지니는 여러 현실과 상황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와 북한이 추구하는 아동양육체계 등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은 많다.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서 있는 보육현장에서 풀어나가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여러 한계로 인해 북한의 아동양육제도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었다. 그러나 북한의 아동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양육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는 계기를 통해 우리의 통일대비 활동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지에 대한 작은 고민의 씨앗을 던져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김동규(1990),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 최민수(1996), 「북한의 취학전 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 곽노의 외(1996), 「비교유아교육론」, 양서원
- 오미경(1995), 「북한의 유아교육제도 분석」, 덕성여대 석사논문
- 곽노의 외(2000), 「유아교육과정」, 문음사
- 김홍일(1996),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비교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내 조국의 반쪽 땅에서 만난 북쪽여성들과 아이들

- 금강산 남북여성통일대회 참가기 -

김명선 · 부산지부장

통일의 열정 이북여성단과 북측 여성단 아리랑의 감동 속에서 기다린 남북여성통일대회 9월에 예정되었던 남북여성통일대회가 연기 될 즈음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10월로 연기된 금강산여성대회에 부산여연에 배정된 인원으로 참가를 권유하는 내용이였다. 막상 제안이 들어오니 참가비 부담의 문제, 아이들 문제, 사무실을 오래 비워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보다도 가고 싶다는 욕구가 더욱 크게 마음속에 차 올랐다. 아니, 이미 마음으로는 들떠 올라 금강산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 후로 부산에서는 연일 통일아시아드의 물결 속에서 북측 공식여성단 아리랑이 "우리는 하나" "통일 조국" 합성으로 붉은 물결을 이루어 온 도시를 출렁이게 했다.

혼자 상근하는 처지라 물론 자유롭게 댈 수 없었지만 휴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온 식구가 "우리는 하나"가 적힌 아리랑여성단 옷으로 갈아입고 경기장을 찾았다. 특히 10월 3일 벌어진 남북 남자농구경기는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에 빠진 축제의 날이었다. 북측의 꽃 같은 여성회원단들의 탁월한 응원솜씨와 한마음으로 모아지는 경기장의 통일여성 분위기에 실려 경기에는 관심이 없고 함께 외치는 공동구호에만 귀 기울이며 흥분하고 있었다. 북측회원단이 선창으로 "우리는-"을 외치면 남측 아리랑여성단과 일반관중석에서 "하나다"로 강단을 맞추며 화답해주는 환상의 공동 응원과 통일 물결타기의 경험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 후로 5살 난 딸아이 온비 입에서 오랫동안 각인되었던 월드컵응원구호가 사라지고 "우리는- 한 개다" "통일-조국"이 신나게 울려 퍼졌다. 목소리까지 이북버전으로 흥내내며...

### 뜨거운 동지애로 보내준 부산회원들

부산지부 운영위에 안전을 우려 부산지부의 이름으로 남북여성통일대회 참가를 확정할 때 부산지부운영위원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대표과견을 위해 소란을 피웠다. 참가비 절반을 공식지원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걸 겨우 진정시켜 20만원 공식지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전달해 주었다. 이 일을 제 일처럼 신나라 하는 몇몇 간부들은 흥분하여 개별후원과 어린이집별 후원이란 이중적 후원방식으로 과다 출혈을 감수하며 적극 지원해 주었다. 덕분에 참가비 부담에 대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조직의 깊은 배려와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입고 참가하게 되어 이 글을 빌어 뜨거운 동지애를 보내준 우리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다.

또 떠나기 전날 밤 속옷을 사들고 우리 동네까지 찾아와 전해주고 간 선생님들과 대회기간 동안 아이들을 도맡아 챙겨준(먹이고 데려가 잠도 재우며 보살핀) 해야해야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 한번 더 전한다. 물론 남편도 한몫 거들었다. 무슨 수련회에 참가해 금강산 갈 때 마누라 옷해줄 야무진 꿈꾸며 천에다 황토 염색을 해와 분위기를 잡으며 나보다 더 들렀다. 비록 천이 얇고 크기도 마땅치 않으니 슬그머니 딸아이 온비 옷이나 해주자며 내뱉긴 했지만....

### 만경봉호가 떠나는 날 춘양호도 뜨고

현대관광선 이용이 힘들어져 배를 통째로 전세 내게 된 탓에 참가단 추가모집방침이 났다. 덕분에 부산은 매거지로 대오를 이루어 여성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내가 있는 사무실은 네 단위가 모두 참가하여 사무실을 비워놓고 가게 될 정도였다.

한국보육교사회도 전체로는 4명이 참가하게 되었다. 이기원, 이경녀, 이인희선생님과 함께 갈 수 있어 충분히 든든했고 단체 파워로도 외롭지 않았다. 북의 탁아유치원사업부 선생들을 만날 때 전해 줄 선물을 고민하다, 우리 작가가 그린 옛이야기 그림책으로 정하고 책장 앞에서 서서 나름의 기준을 세워가며 엄선하여 골라내느라 시간을 한참 보냈다. 지난해 처음으로 남북공동행사에 대표로 참가한 부산여성회 회장 편으로 북의 탁아유치원사업부일꾼에게 전달하라고 백두대간 놀이관을 전해 준 일이 있으니 혹시라도 그곳에서 보육교사회라는 단체를 알고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며, 또 금강산 물맛을 보고 싶어하는 부산회원들의 요구와 까치샘의 부탁이 있어 빈 물통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실제 출발일이 15일 새벽이었지만 사전 방북교육 때문에 부산지역사람들은 14일 새벽부터 잠을 설치며 집을 나서야 했다. 워낙 많은 수가 서울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야 했기에 개인적으로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은 등근나라어린이집을 빌려 하룻밤 신세를 졌다. 번거로운 일이었는데도 보육교사회의 조직력(?)과 안경자선생님의 넉넉한 인정 덕에 떠나기 전날을 타지에서 편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 그 날 신세진 부산사람들이 무척 고마워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그 날은 부산의 다대포항에 정박해있던 만경봉호가 북으로 떠나가는 날이기도 했다. 부산사람들은 이북여성단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열렬한 배웅을 해주지 못한다는 점에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 만경봉호를 타고 금강산으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까 생각하며 아쉬워했다.

### 떠나는 날 아침풍경

10월 15일 아침 7시 경북궁 주차장에는 속초항까지 우리를 실어갈 11대의 버스가 늘어서 있었다. 바로 전날 금강산 남북청년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청년일꾼들이 나와 환영의 배웅과 함께 한정현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대해 선전과 규탄서명을 벌이는 속에 여성대회 대표단의 출발기차 회견을 가졌다. 특히 이전의 국보법 경력을 문제삼아 참가단 중 6명을 방북불허시킨 점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부산에도 2명이 해당되어 함께 서울까지 올라왔다가 눈물을 삼키며 발길을 되돌려 내려가야 했다. 한 분은 70대 빨치산전력이 있는 선생님이시고 또 한 명은 학생시

절 한송련대의원이란 이유로 국보법에 걸려있던 전력으로 방북불허가 난 거다. 게다가 그 친구는 현재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공부하며 논문준비로 남북여성정책과 여성의식비교를 과제로 삼고 참가하려던 참이었기에 더욱 화가 나고 안타까웠다.

아직도 이미 녹슬어버린 국보법의 사슬이 통일의 새길 열어가려는 여성대회의 발목마저 붙잡고 있는 현실에 슬픔과 노여움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통일대회의 성사를 위해 속초를 향해 출발했다. 이인희생만 다른 차에 배치되고 보육교사회 소속은 모두 한국여성단체연합에 포함되어 같은 차에 탈 수 있었다.

차안에서 나는 부산여연 대표와 나란히 앉아 보육교사회후원사업에 대해 공식지원요청과 후원금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토론하며 연대의교를 벌이기도 했다.

차는 미시령과 소양강을 지나 인제, 원통 군사지역을 지나 설악산을 스쳐 나아갔다. 소양강을 지날 땐 단체관광 나온 아줌마관광단 맛을 내며 소양강치너를 함께 소리 높여 불렀고 설악산을 스쳐 갈 땐 창 밖의 눈부신 가을 단풍에 취해보려 몸을 굽혀 가장 좋은 관람자세를 취해보며 모처럼 쉼 단체일에서 벗어나 최대한 이 기회를 즐겨보려 노력들을 했다.

속초항에 도착하여 간단한 단체수속을 마치고 춘양호에 오르는데 속초항 TV를 통해 부산 다대포항에서 떠나가는 이북유원단의 모습과 환영인파를 보여주는데 괜히 마음이 켜지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 북방한계선을 지나며

춘양호는 금강산을 다니는 전용관광선이 아니라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이라 시설이 많이 낙후하고 불편하다는 양해를 구하는 예길 미리 들어서인지 생각보다는 훨씬 지낼만 했다. 우리를 금강산 장전항까지 태워다 줄 배이니 고맙기도 하고 남들은 촌스럽다했지만 이름까지 정답게 느껴졌다. 배에 오르자마자 우리 보육교사회 참가단들은 발빠르게 함께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고 이경녀 사무국장은 기록화를 위해 비디오카메라를 들이대기도 했다. 배를 타고 가는 중 갑작스레 날씨가 영망이 되어 비바람과 풍랑을 만나 배가 심하게 흔들렸다. 모두 360여명이 함께 가니 밥을 나누어서 먹어야했는데 우리 팀이 밥을 먹을 땐 뱃머리에 있는 식당칸이 가장 예민하게 파도를 느껴 밥그릇을 감싸안고 접시를 붙들고 간신히 몸을 지탱해가며 먹어야 했다. 덕분에 배멀미를 심하게



북방한계선을 지나며

했는데 떠나기 전 집에서 쉬지 못하고 며칠을 밖에서 낚시를 지새다 떠났을 탓에 멀미와 몸살이 겹쳐 막상 남북여성통일대회의 공식 일정동안 몸이 빌빌거리며 체력이 따라주지 못해 애를 먹었다.

배멀미에 걸려 갑판으로 나와 바다를 보며 앉아 있는데 북방한계선이 다가옴을 안내방송 해주었다. 끼리끼리 모여 환호를 지르기도 하고 감동에 북받쳐 통일노래를 불러제끼는 등 참가자들 대부분이 밖으로 나와 들뜬 마음으로 북방한계선통과를 자축하며 통과의례를 치렀다. 그 즈음 파도도 잠잠해지며 풍랑이 그친 평화의 바다가 펼쳐졌다. 나도 멀미를 수습하고 부산 회원들에게 전화로 감동과 사랑을 나누었다. 전화가 어디까지 터지나 시험해본다는 명목으로 바쁜 시간 어린이집 전화를 붙잡게 만들며 악을 울려가며 북방한계선을 지났다.

북방한계선은 어디에서 보이지 않는 선, 실체가 없는 존재하지 않는 선이었고 분단과 중오가 만 들어낸 안타까운 가짜였다. 그걸 말해주듯 바다는 더욱 고요하고 평화스러웠다.

배를 타고 4시간을 달려 저녁 6시경 금강산 장전항에 도착했다. 지명으로는 강원도 고성 온정리이며, 이 지역은 군사항으로 장전항이라 불려졌다. 배에서 내리니 그다지 멀지 않게 펼쳐진 금강산 자락들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으로만 보던 기암절벽과 바위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빛 정치구호를 보며 내가 정말 반쪽의 조국 북의 땅에 들어섰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무엇보다 진짜 북쪽에 와있음을 실감한 건 입국심사때 이북군인들과 김일성주석 뱃지를 단 북쪽의 관리 일꾼들을 눈으로 직접보고 말을 걸 때였다. 입국심사는 까다롭지 않고 신속했으며 관리인들은 남의 여성대회 참가단들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고 친절하게 반응했다. 우리는 괜히 한마디라도 걸어보려고 "부산에서 왔습니다. 통일유원단 보셨나요?" 물어보니 텔레비전에서 잘 보았으며 북측선수단에 열렬히 응원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바로 보내주었다. 입국심사 후 다시 현대금강산 관광사업단의 버스에 나눠 타고 금강산 온천으로 향했다. 1시간으로 마련된 온천은 자연온천이라 물이 참 좋았다는 것과, 남쪽에서도 온천은 커녕 목욕도 잘 가지 못했던 나에게 참 고마운 기회라는 생각에 감지덕지했다. 캄캄한 밤하늘을 보며 찬 공기에 멀미 노천온천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글 땐 모두들 금강산 연못으로 목욕 나온 천상선녀 신세 부럽지 않았다. 온천을 마치고 현대가 운영하는 온정각에서 저녁을 먹고 나와 평화의 상징의식으로 큰 광목천에다 손바닥찍기와 여성대회에 바라는 평화기원서명 행사를 가졌다. 조금 늦게 갔더니 이미 여백이 거의 없어 겨우 찾아내서 손바닥을 찍고 펜을 꺾꺾 눌러 한마디 적어 넣는데 바로 옆이 이경녀 선생님이 찍은 손바닥이었다. 무의식중에도 끼리끼리 모이는 모양이다.

## 첫 만남의 날, 눈물로 반겨준 어린 소녀의 환영

10월 16일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 공식대회일정에 맞춰 춘양호에서 일찍 아침을 먹고 버스에 올라 타 온정각 옆에 있는 김정숙휴양소를 향했다. 가는 길 군인들이 드문드문 지키고 선 군사경계 철조망 너머로 온정리 주민들이 사는 협동농장 주거지와 들판으로 일나온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엄마 등에 업혀 나온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간간이 우리가 흔드는 손과 한반도 단 일기를 보고 멀리서 손을 흔들어 주거나 눈길을 보내주었다. 그중 어린아이들은 더욱 열심히 화답해주었다. 북쪽도 수해를 크게 입어 도로가 끊어진 모습도 보이고 마을 하천 제방이 무너져내려 아직도 복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냇가에서 빨래하는 모습과 수해피해로 다락논들이 다 휩쓸려

내려가 벼이삭이 흩어 파묻힌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 왔다. 반가운 모습은 경의선 철도공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금강산 청년역> 표지판과 '철도연결! 도로연결!' 이 적힌 구호판을 볼 수 있었다.

온정각에 내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선 김정숙휴양소를 향하는데 휴양소 앞 길목에 북의 참가단들이 열을 지어 민족자주?조국통일이 적힌 파랑, 빨강색 깃발을 흔들며 남에서 온 우리 참가단을 맞을 준비를 하고있었다. "우리는 하나!" 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북쪽 참가단과 합류하여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하며 운동장으로 동반 입장했다.

운동장가에 방 둘러 선 북의 젊은 예술단들과 어린이들이 환영의 몸짓으로 반겨주었는데, 그 속에서 절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정성껏 환영인사를 보내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덩달아 마음이 뭉클해졌다.

### 이들간의 공식 남북여성통일대회

이번 여성대회의 공식명칭은 <6.15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통일대회 - 여성, 평화의 힘!>이며 분단이후 최초로 열리는 대중적 규모의 여성대회이다. 남쪽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화여성위원회, 7개종단여성위원회, 통일연대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여성위원회가 공동주관하고 북쪽은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여성협회, 민족화해협의회여성부가 주관했다. 학계 정치인, 예술인, 경제인, 교육, 보육관계자, 보건의료, 법조인, 노동자, 기자, 공연팀 등 주관단체 이외에도 각계 분야별참가가 보장되어 남측 참가단은 350명 규모, 북측은 300명, 해외가 20명 선으로 참가했다.

대회장 입장과 함께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식대회 일정이 진행되었다. 통일기가 게양되고 북과 남의 대표가 축하연설을 한 뒤 곧바로 그 자리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여성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 토론회는 우리가 익숙한 방식의 주제발표와 질의, 상호토론이 아니라 각자 정리된 입장 속에서 나온 원고를 읽어내는 식이었다. 토론회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남의 윤금순 통일연대여성위원장과 북의 최준금 김일성종합대학 교수가 발표했고 <평화와 여성의 역할>은 북의 배민옥 2.16예술교육출판사 사장과 남의 정현택 한국여연 공동대표가 발표했다. 그 뒤에 휴양소안 전시장에서 기념 수여 및 미술전시회를 남 북의 참가단이 함께 어울려 구경했는데 복잡잡한 전시장 속에서 북의 어린이들이 붓글씨와 수묵화



금강산 러관의 저녁 만찬을 마치고

를 즉석에서 써주고 그려주는 시범을 보였다. 붓글을 쓰는 남자아이는 11살로 '명성'이란 이름의 고등중학교 중등반 1학년생이었다. 맘을 흘려가면서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남에서 온 손님들의 요구에 맞춰 열심히 힘찬 필체로 붓글을 써 선물해주었다. 주로 '우리는 하나'와 '통일 어머니'를 즐겨 썼다. 그 구경하는 북새통속에서 함께 손잡고 들어간 농근맹 소속의 박지화 헤어져 오리알 신세가 되기도 했다.

북의 수예솜씨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다. 멀리서 볼 때 분명히 물감으로 그려진 수채화 같은 작품들이 가까이 보니 모두 수예로 한 뼘씩 수놓아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아기자기한 작품부터 규모가 웅장하고 장대한 대작까지 수예를 예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 매김 시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구경을 마치고 근처의 술밭에서 북측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어울려 점심을 먹었다. 우리(보육교사회대표단)가 속한 자리에는 북의 여맹에서 조직 사업을 담당하다 사회민주당으로 자리를 옮긴 홍정숙대표와 로성실 평양시 조선여맹위원장 등 6명의 북측참가단과 해외 대표로는 일본의 조총련계 할머니(?)들이 함께 했다. 도시락은 소박하지만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 입에 맞았고 북의 통성 맥주는 남의 흑맥주와 비슷한 맛이라 고소하고 뒷맛이 좋았다. 함께 식사하며 금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북측 대표단은 술도 잘하고 즉석에서 요청하는 모든 요구나 권유사항을 흔쾌히 받아주어 화근함과 호탕함을 느끼게 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주저하는 게 없이 열정적인 북쪽사람들 덕에 점심시간은 곧 바로 춤을 배우는 집단놀이의 자리로 발전되었다.

뒤 이어서 운동장으로 돌아와 공동 유희, 오락경기를 벌였다. 전체 참가자들이 자유팀과 단결팀으로 나누어 각 팀에서 자원한 선수단 16명을 선발하여 종목별 경기를 펼쳤고 응원대결도 치열했다. 이미 통일아시아드에 참가한 이북 응원단의 위력을 확인한 남쪽에서는 응원단장을 북쪽에 위임시켰고, 응원지존의 나라임을 확인시켜주듯 내가 속한 자유팀에는 북에서 박사칭호를 받은 50대의 맹렬여성이 온몸을 던져 박진감과 에너지가 넘쳐나는 응원을 벌였다. 경기종목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집단체육 놀이들이 많았는데, 마음 합쳐 꽃줄 넘기-공이고 끼고 달리기-우리엄마 찾기-병 안에 고리 넣어 끼고 달리기 등이다.

특이한 점은 경기를 벌이는 동안 전문 체조팀들이 매번 나와서 집단체조와 유희를 함께 펼치는 일이었다. 김제주의 방식의 유희, 오락경기라는데 경기 보라, 체조 보라, 응원하라 관람에도 상당한 능력과 노력이 필요했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따라잡느라 정말 바빴다.

이날 오후 7시경부터는 금강산려관에서 북의 초청형식으로 환영만찬을 가졌다. 소문으로는 북의 금강산려관이 현대에 팔렸다고 했다. 지난해 여성대회에 참가했던 부산여연 대표 말로는 이번 금강산려관 음식이 훨씬 못해졌는데 아마 현대에 팔려서 공식행사 준비하는데 북측의 예로침이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안타까운 점은 금강산의 많은 부분들이 현대에 잠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금강산 관광개발에 나섰다지만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재벌의 속성상 금강산을 많이 해치고 손상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내가 배치된 테이블에는 점심식사 때 만났던 사민당 홍정옥선생과 민화협에서 나온 박춘화선생 그리고 중국에서 예국사업을 해왔다는 해외대표 선생님이 함께 앉았다. 북측의 참가단들은 통일대회의 공식대회의에 굉장히 충실했다. 그건 의식적인 노력이기보다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생활 속에서 녹아 내리는 실천력에 승

실한 모습인 것 같았다. 남에서는 6.15가 통일운동단체의 운동구호로 치부될 뿐인데 반해 북에서는 간부에서 일반 주민들까지 6.15선언의 생활력을 유감없이 실천하는 듯 보였다.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선생이 속한 단체에서는 어떤 노력과 실천들을 하고있는가?가 북쪽 참가단의 공통된 질문과 관심사였다. 그래도 여성들의 일반적인 관심에도 이야기꽃은 활짝 피었다. 북에선 여자의 지위가 대등하니 딸 하나만 낳아도 하등 섭섭한 없이 키우며, 딸만 둘인 경우엔 북딸이라 불러준다. 남쪽은 딸딸이 아파로 통칭되는데 말이다. 남쪽에서 공연 온 윤도현밴드의 음악이야기엔 배꼽잡고 웃음이 났다. 홍정옥선생은 그 공연장에서 머리가 복잡하고 너무 시끄러워 가사전달도 되지 않아 듣고 있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남쪽에서 방송으로 볼 때 북쪽 관람석의 반응은 확연히 차이가 느껴졌다. 나이든 분들은 무척 진지하고 곤혹스런 모습이었고 젊은 층들은 박수도 치며 새로운 분위기의 강렬한 음악에 즐거워하는 모습이였다. 북의 여성들은 보통 출산수가 2-3명인 편인데 간부일꾼들은 상대적으로 아이수가 적어 남이나 북이나 일하는 여성들은 육아에 대한 일정한 부담을 가지고 자연조절을 하는 공통점이 느껴졌다. 북쪽은 산아제한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주니 많이 낳을 것을 권장하여 4명 이상을 출산할 땐 모성영웅이란 칭호를 받는다 했다. 남쪽도 심각한 수준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니 이 내용을 제도화하여 민족과 국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을 써 봐야 될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

#### 기대에 비해 너무 짧고 아쉬웠던 부문별 상봉시간.

10월 17일 너무나 기대했던 부문별 상봉모임은 김정숙휴양소 운동장에서 이루어졌다. 보육은 보건의료와 한 단위로 편제되었다. 북측은 평양산원 김진수원장, 조선어맹안에 조직되어있는 탁아유치원사업부의 책임부원과 조직사업담당 명선옥선생, 평양 강경유치원 강경옥원장과 유치원 교사 등이 참가했고, 남에서는 우리 보육교사회대표단과 보건의료연대소속 의사, 약사들, 공동육아연구원, 인천의 희망세상어린이집 교사들, 대한여의사회, 여약사회 등에서 참가했다. 먼저 평양산원 김진수원장의 북의 건강관리와 보건체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인상적인 것은 평양산원이 해방직후 1946년 7월 30일에 제정된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기념하여 76년 7월 30일에 개원을 했다는 점이다. 이북은 예방의학 중심으로 지역별 주민할당제의 주치의제도를 시행



북의 탁아유치원 사업부 담당자들과의 기념촬영

하고 있단다. 평양산원 개원을 통해 출산부터 여성의 건강에 대한 평생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한다. 북은 산전산후휴가 150일을 보내고 직장으로 복귀할 때 3개월부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탁아제도가 시행된다고 했다. 부문상봉시간이 워낙 부족해(1시간) 탁아유치원사업부의 사업체계에 대한 발표는 듣지 못하고 참가자들간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아쉬운 마무리를 해야했다. 구체적인 요구를 가진 직능단체들은 확실한 전문분야로 나누어 부문토론을 했다면 비록 한시간일지라도 알뜰하게 채울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우리들은 무척 서운하고 아쉬웠다. 그래도 틈나는 대로 탁아유치원사업부소속 선생들과 얘기도 나누고 금강산에 오기 전 남북여성정책에 대한 자료들을 검색하여 찾아보기도 하고 '북한유아교육'이란 책자도 뒤적거려 본 바로 북의 탁아유치원사업체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 북의 보육제도와 어린이보육교양법

북에서는 이미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시행세칙'(46. 9. 14)에서 부부의 재산관계, 자유결혼, 이혼의 자유 등을 규정하여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강화를 이루어 냈는데, 실질적인 남녀평등정책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실시했다한다. 이 가사노동의 사회화 중 가장 중시했던 일이 바로 탁아소 건설이었다. 이미 47년 탁아소 설립에 대한 규칙이 제정된 이래 탁아소, 유치원은 꾸준히 만들어져 이미 76년경엔 6만개의 시설에 350만 여 명이 수용됨으로 대상 어린이 대부분을 포괄해냈다. 이러한 토대 위에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제정되어 국가와 사회의 양육책임(즉 육아의 사회화)을 제도적으로 완결시킨다. 북의 탁아소와 유치원은 연령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어린이보육교양법>이란 단일법규에 따라 운영된다. 탁아소는 만3세까지의 영아를 돌보며 관리하는 보건성에서 해내고 유치원은 만 4, 5세 교육기간이 2년으로 높은 반(만5세)은 북의 11년 의무교육제도에 편입되어있는데 교육성에서 관할하고 있다한다.

보통 탁아소에서의 반편성은 1-6개월까지는 셋씩이반, 7-18개월까진 셋째기반, 19-36개월까진 교양반, 37-48개월까진 유치원 준비반으로 편성되며 주로 탁아소에서는 교사대 아동비율이 1:6이고 만4세부터의 유치원에선 1:20의 수준이라 했다. 탁아소건 유치원이건 종일제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일탁아소, 주탁아소(월요일 아침 데려다 주고 토요일 오후에 찾아가는), 월탁아소(부모가 장거출장을 가거나 지방사업을 떠날 때)의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한다.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어린이보육교양법>12조에 명시되어있는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며 중앙의 탁아소, 유치원은 중앙예산으로, 시·도·군의 탁아소, 유치원은 지방예산으로 지원하며 협동농장 탁아소유치원은 협동농장의 공동소비자금으로 지원한다. 부문별상봉모임에서 만난 평양 서송구역에 있는 강경유치원 원장은 교사생활10년 경력으로 원장으로 배치되었다며 자기가 좀 늦은 경우라 했다.

북의 교육이념을 보면 92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속에서 지·덕·체교육을 강조하는데 <지>란 지식교육을 <덕>이란 공산주의도덕교육을, <체>란 건강한 신체유지를 위한 체육교육을 의미하며, 특히 체육교육에 대한 강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체발육이 왕성한 시기 체력을 튼튼히 하고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해 거의 매일 집단체조를 실시한다고 했다.

교사들은 재교육을 활발히 받는데, 경험토론회라는 이름의 상호학습과 교수강습대라는 전문 재

교육 강사진이 지역과 현장을 돌며 재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모범을 따라 배우는 교육을 선호하며 이 덕분에 모든 지역의 탁아, 유치원들에서 동일한 질의 교육적 혜택이 제공되고있다.

북의 여성정책과 보육정책, 어린이 관련정책들은 남쪽에 비해 몇 십 년씩이나 앞서있었다. 북은 탁아제도 정비 후 '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으로 어린이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완결시킨 데 반해 남에선 가난한 아이들이 슬하게 불 타 죽어가고 탁아운동가들과 여성단체의 눈물겨운 투쟁을 통해 겨우 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마련되었으니 말이다. 그것도 완결이 아니라 시작의 의미로, 남쪽에선 공보육구호가 이제서야 조금 들어 먹히는 형편이며, 아직도 일하는 여성들에게 육아문제는 가장 큰 장애물로 고민되고 있다.

그러니 지금 현재까지 북이 생산력도 낮고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에 처해있어 비교할 순 없겠지만 하지만 한 사회에서 어린이를 어떻게 대접하며 키워내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물질이 풍요로운 남쪽에서는 어린이 관련정책에 대한 국가비전과 철학적 교육이념이 부재하여 북에 비해 남의 아이들이 미래사회에선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되었다.

## 신명난 군중무도와 아름다운 금강산!

부문상봉 후 운동장에선 합동예술공연이 벌어졌다. 남쪽은 꽃다지와 어린이 노래패 아름다운, 춤패 '출', 김애경씨가 공연을 했고 북에서는 여성가수들의 민요공연과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공연, 집단무용 등을 펼쳤는데 여섯 살 난 설봉이의 고향의 봄, 우리엄마 뽀뽀 공연이 단연 인기였다. 몸짓과 목소리가 어찌나 감동하던지, 북쪽 참가단들도 그 모습을 제대로 보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뒷발을 세우며 보느라 열심이였다. 합동예술공연의 백미는 무엇보다도 마지막 단심줄고기와 함께 벌인 군중무도회였다. 평양 철도성 취주악단의 시범과 인도에 따라 북쪽 참가단에게서 배워가며 한순간에 통일노래에 맞춰 춤판이 흥겹게 벌어졌다. 웅해야, 우리는 하나, 통일무지개, 홀라리 등 1시간 이상을 노래에 맞춰 춤추는 동안 딱지 춤선생과(내 딱지는 순해 보이고 사랑스럽게 잘 웃는 철도성 취주악단 춘봉이란 이름의 23살 아가씨였다) 흠뻑 정이 들었다. 정든 딱지와 아쉬운 이별을 하고 금강산으로 향했다. 2시간 정도의 산행시간이 허락되어있었다. 금강산은 설악산과 느낌이 비슷하지만 더욱 위엄있고 아름다웠다. 단풍도 붉게 물들어 오르고 물빛도 짙은 옥색이었다. 하



감동한 여섯 살짜리 노랫꾼  
설봉이의 공연모습

늘나라선녀가 금강산의 아름다움과 물빛에 취해 두레박 타고 내려와서 놀다 목욕까지 하고 갔다는 옛이야기가 그럴듯하게 여겨졌다. 옥류봉 가는 길에 삼록수라는 이름난 샘물이 있어 부탁 받은 심부름에 충실하느라 물병에 떠 담았다. 산삼과 녹용이 흐르는 물이라 삼록수라 이름지었다는데 물맛이 참 달고도 좋았다. 산행길에서 북의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붓글 잘쓰던 명성이랑 장고춤과 노래공연을 보인 여학생 그리고 감쪽한 여섯 살 귀여운 노랫꾼 설봉이까지. 만나는 아이들마다 붙잡고 감싸안고 사진을 찍었다. 내 딸과 아들 같은 자랑스런 우리아이들이다.

## 헤어지는 시간, 눈물 속에서 함께 염원한 통일!

금강산을 내려와 휴양소 입구에서 이별의 전송의식을 가졌다. 이틀간 짧은 만남이지만 피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니, 어찌 금세 정들지 않았는가? 길목에 줄지어 서서 서로 부여안고 눈물 글썽이며 손 맞잡고 뜨거운 체온을 나누며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맘속 깊이 통일을 염원했다. 이틀동안 내가 만난 북의 여성들은 기질은 서로 달라 수줍음을 많이 타고 매우 차분한 사람도 있고 거침없이 씩씩하고 애살 많은 사람 등 아주 다양했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기골장대(북방계라선지 대체로 골격이 크고 튼실해 보였다)하고 강인하고 낙관적이며 매우 솔직 담백했다.

남쪽 참가단을 태운 춘양호가 다시 속초를 향해 내려가는 길, 배 안은 여자들의 신명난 해방구였고 내 가슴엔 휴양소의 열 벽면에 적힌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가자'라고 붉게 새겨진 구절이 맴돌았다. 내 조국의 반쪽 땅에선 미국의 전쟁위협과 경제적 고립으로 인한 생활적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고 심지어 굳게 앞날을 낙관하며 살아가는 여성들과 꿈을 안고 자라가는 자랑스런 우리아이들이 있다. 이제 우리 보육교사들도 북의 탁아유치원사업부와 공식교류를 갖고 우리아이들의 통일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준비해 나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다급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출렁이고 있었다.



개막식

# 남자아이를 더 좋아한다구요?

## - 교사의 양성평등적 접근을 위한 시도 -

서정은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 박사과정

지난 9월부터 양성평등 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보육교사 의식개선 워크숍이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워크숍에 참석한 보육 교사들에게 "당신이나 당신의 시설에서 아동들에게 양성평등적인 교육을 하는가?" 하고 물으니, 그에 대해서 많은 수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남/여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나서 자라고 교육받는 동안, 은연중에 깊숙이 배어버려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뿌리깊게 박힌 것이 성(性)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이라 함은 있지도 않은 어떤 것을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서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특히 남이나, 여야나 하는 구분이 단순한 성별 차이에서 나아가 전형적인 남/여 성격과 역할, 태도 등으로 굳어지고 서로에게 요구된다면, 아이들의 자유로운 개성과 특징, 아동의 존엄성은 억압되고 무시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교사들이 보육시설에서 남/여 아동의 성차별을 지양하고, 양성평등적인 접근을 시도하자는 의미에서 정리했다.

### 1.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몇 가지 낭설

그간의 연구는, 남성과 여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다르며 남성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입증하려 했던 여러 논문을 살핀 연구에서 밝힌 바대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남/여의 차이가 실상은, 그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온 미신이나 낭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고정관념의 예를 들자면,

- 1) 여성이 남성보다 더 소심, 무서워하며 불안해하고 감성적이다.
- 2) 남성이 여성보다 지배적, 경쟁적이다
- 3) 여성이 남성보다 이타적이다.
- 4) 소녀는 소년보다 더 사교적이다.
- 5) 소녀는 소년보다 남의 말에 더 잘 따른다.
- 6) 소녀는 소년보다 자존심이 더 낮다.

7) 소녀는 단순, 반복적인 과제를 잘하는 반면, 소년은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잘한다.

8) 소년은 소녀보다 더 분석적이다.

9) 소녀들은 성취동기가 낮다.

남/여의 차이는 생물학적으로(염색체와 호르몬 등)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사회의 문화와 기대, 풍속, 교육, 아동의 인지, 경험 등 다양한 환경요인들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남/여의 차이가 만들어지고 영향 받는다.

### 2. 아이들에게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9개 항목들은 남/여에 대한 고정관념을 대표하는 것들이다. 남/여에 대한 고정관념을 어른들만 갖고 있는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몇 가지로 나눠보면(한국여성개발원, 1995),

- 1) 아동들은 여자일과 남자일을 구분한다.
- 2) 아동들은 남자와 여자의 생리적 특성을 구분한다. (힘세고, 용감/약하고, 무서움)
- 3) 아동들은 여자모습과 남자모습을 구분한다.
- 4) 아동들은 여자색과 남자색을 구분한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에게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다고 진술했다. 참가한 보육 교사들은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교사 자신이 겪었던 아동들의 모습에서 아동들의 고정관념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아동들의 성 고정관념을 접하였을 때 보여주었던 교사의 반응과 태도, 활동들을 기억해 내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교사의 개입에 대해 모둠에서 토론하였다.

### 3. 유아교육기관에서 아동들은 남/여의 성별 구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많은 교사들의 바람과 희망과는 다르게, 유아교육기관은 전형적인 성역할을 지속시키거나 강화하여 전통적 성역할을 재생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아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교육과 활동에서 남/여 아동의 성역할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잘못된 통념이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 흔히 생각하는 잘못된 통념으로(Greenberg, 1985).

- 1) 아동들이 현재 자신의 부모가 수행하고 있는 성역할을 습득해야 한다 : 아동들은 과거 부모들이 수행하는 성역할에서 벗어난 미래의 역할을 습득해야 하며 교사들은 부모들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부딪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 2) 놀이감 놀이를 통해 여아와 남아가 얻게 되는 교육경험은 똑같다: 그러나 남아와 여아는 놀이형태와 선택하는 놀이감도 다르며, 그 속에서 얻는 교육경험이 같다고 할 수 없다.
- 3) 여아와 남아는 상당히 유사한 능력과 경험, 소양을 가지고 유아교육기관에 들어온다: 아이들의 사전 교육경험과 능력 등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4) 초기 교육환경은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여아들이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 활동을 더 능숙하게 해낼 수 있으나, 도리어 여아들에 대해 교육적인 고려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될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기관을 관찰한 연구에 의하면(한국여성개발원, 1995), 교사의 교수 활동에 있어서도 남/여 차별이 존재한다.

- 1) 남아는 여아보다 교사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며, 교사는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남아에게 더 많은 평가 발언을 한다.
- 2) 여아보다 남아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반응할 가능성이 더 많으며, 큰 소리로 질책할 가능성이 높다.
- 3) 의존적 행동인 주의 끌기와 교사와 가까이 있기는, 남아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 보다 지시적이고 교수적인 반응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 4) 여아의 주의 끌기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 칭찬, 신체적 접촉, 도와주기와 같은 양육적 형태의 주의가 주어진다.
- 5) 남아는 교사와 떨어져 활동에 참여할 때 더 많은 돌봄을, 여아는 교사 옆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

#### 4. 보육시설에서 남/여 아동은 다르게 놀이하고 경험한다.

아동들은 여러 면에서 남/여의 성별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놀이에 있어서 두드러진다. 즉, 여아는 정적인 놀이, 역할 놀이(소꿉놀이, 구슬떼기, 점토놀이, 조작놀이), 실외놀이에서 몸놀이가 적은 활동을 선호한다. 남아는 동적인 놀이, 움직임이 큰 놀이(블럭 만들기, 적목놀이) 몸놀림이 활발한 움직임을 선호한다(남/여 아동의 놀이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자).

#### 5. 교사들의 의식과 실재는 다르다.

아동에게 성 고정관념이 있음을 알았을 때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한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의 개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남/여 아동의 역할로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그저 문제제기만

하는 소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며, 전통적 성역할의 사회화를 촉진시키기도 한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모두 남자일과 여자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보적 성역할관을 표명했다(한국여성개발원, 1995).

그러나 진보적인 성역할관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실제 하고 있는 교수활동은 전반적으로 아동들에게 전통적인 성역할을 학습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표명하고 있는 성역할관이 어떠한 간에 한 교사의 교육활동 속에서 진보적인 모습과 전통적인 모습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통적이라거나 완전히 진보적일 수 없다. 교사들의 성역할에 대한 의식에 약간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사 자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교육적 의미가 진단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교사들이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사용해 온 언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 활동에 있어 선택한 교재에 내포되어 있는 성차별적 의미 등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한다. 교사의 양성평등적인 시각을 가다듬기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과 자기 통찰이 필요하다.

#### 6. 양성평등적 접근을 위한 임시적인 제안

좀 더 많은 수의 교사들이 양성평등적인 보육시설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교육경험을 진솔하게 밝히고 반성하며, 그 속에서 교육과 활동에서 양성평등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실천지침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 개별적으로는 늘 성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경계하고 스스로의 활동을 반성하고 재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별 시설에서는 서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주는 교사들의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작업 전에, 연구자료와 그간의 여러 생각들을 모으면 다음과 같다.

##### 1) 교육과 활동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언어와 관습을 경계하자.

- ① 교실 운영에서 교사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예쁘게 하기'에 대해 생각하자. 예쁘게 하기는 수동성, 온순성을 강조하고 아동이 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 ② 활동에 있어 집단을 나눌 때 남/여 아동으로 분류하고 그 속에서 경쟁하거나 대립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 ③ 교육내용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경계하자.
  - 엄마, 아빠의 모습을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기.
  - 직업 설명에서 아저씨, 언니 호칭으로 불러 여자직업, 남자직업으로 인식케 하기.
  - 건국설화를 비롯, 훌륭한 사람들로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남자들이다.

##### 2)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버리자.

대부분의 연구에서 개인의 행동 성차는 그가 소속된 가족의 성문화, 특히 부모들이 갖고 있는 성

별 양육방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개인 성차가 유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역할 모델이 되고, 자녀들에게 어떤 성역할 기대감을 표시하며, 직접 성역할 교육을 하는 등 심리적 성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성에 대한 부모의 조화로운 관점이 바로 서야만 부모는 아이들에게 진지하고도 자연스러운 자세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아동에게 실시하는 성평등역할 교육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들의 협력적인 관계가 매우 필요하다. Davidson(1979)에 의하면 유아교육기관에서 성평등 역할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가정에서 전형적인 성역할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성역할 태도의 변화가 아주 짧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육아와 교육의 제일 책임자로서 어머니를 전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아동들에게 이야기하여 가정에서의 학습지도, 교육의 책임을 아버지와 나누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성역할관에 대해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기억하자.

### 3) 자유놀이에 대한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들의 자유선택놀이 시간에 보여준 교사들의 일반적인 교육방식은 아동들의 놀이 활동선택에 개입하지 않고, 소란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질서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묘사되고 있다. 만일 남/녀 아동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사회화된 놀이 영역에 집중하는 결과는 더욱더 남/녀의 성별 차이를 강화해 줄 것이다. 교사의 세심하고 적절한 개입과 환경의 조작을 통한 변화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아들이 주로 하는 소꿉놀이를 축소하기, 소꿉놀이와 블록놀이 사이의 영역 구분대를 없애서 영역을 연결하기, 아동의 선택한 놀이활동을 표에 기록하기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4) 남녀 구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남녀 아동이 섞여 논다면, 그것은 양성평등인가? 또는 남녀 구분이 없이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가르치자는 건가? 우리는 남녀 구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성이라는 기준으로 무시되고 억압되었던, 아동 개개인의 개성과 특질을 살리자는 것이다. 남아대로, 여아대로의 전형적인 성역할을 고집해서도 안되지만, 반대로 남녀아동의 성역할을 역전시키거나, 동일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 5) 영아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성 고정관념은 성과 무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을 때조차도 한 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Martin, 1987)에 유아기에 잘못된 형성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36개월 미만의 어린 연령에서부터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유아기 아동에게 인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성교육만으로는 미흡하며 어린 영아에 대한 주의와 고려가 필요하다.

### 6) 교사의 설교와 일방적인 지도로 양성평등이 '교육' 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의 하위 영역으로서, 성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역할이나 협력, 평등과 존중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양성평등을 '교육'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포괄적·통합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아동의 삶 속에서 양성평등적 관점과 태도로 관계 맺을 때 가능하다.

포괄적·통합적인 양성평등적 접근은,

첫째, 미리 계획된 교육계획안과 활동과정은 물론, 아동의 일상생활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를 비롯한 성인과 아동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셋째, 성인과 아동이 서로의 관계속에서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아동이 양성평등한 의식 아래 타인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 능력을 맺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성평등적인 관계에서 성장한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타인을 존중하고 도움 줄 아는 심성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양성평등적 접근은 영·유아기부터 발달적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 일상의 관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제까지의 제안은 이미 완성된, 얻어진 결론을 향해 돌아가는 과정이 아니며 뜻있는 교사들이 나서서 우리 아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성적 차별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 그 자체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용기를 내어 모든 교사들이 새롭게 도전하길 제안한다.

### 참고문헌

- 박노의(2001) 유아성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그 방향, 열린유아교육학회 2001 가을학술대회 논문집, 열린유아교육학회
- 박노의·유구종·이병태·강병재(2002) 유아교육에서의 성교육 요구조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7권 제1호, 열린유아교육학회
- 교육인적자원부(2002)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http://edugender.or.kr>(검색일, 2002. 8.)
- 교육인적자원부(2001) 유아용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성교육지도지침서. <http://moe.go.kr>(검색일, 2002. 8.)
- 신현옥(2001) 유아 성교육과 양성평등, 열린유아교육학회 2001 가을학술대회 논문집, 열린유아교육학회
- 연미영(2000) 유아의 성평등역할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의식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윤경(2002) 양성평등한 육아문화와 보육, 2002년 서울 여성복지학교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1996) 어린이집에서 성교육 어떻게 할까?, 미간행 자료집

조선경(1996). 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기 성찰. 우리네 아이들 1996년 9월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정희연(1996). 부모 성교육을 위한 제언 및 실천자료, 우리네 아이들 1996년 10월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http://kdta.or.kr(검색일: 2002. 8)

정진경(1987). 성역할 연구의 양적 시각. 한국여성학 제3집,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개발원(199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성역할 교수, 학습과정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2000). 취학전 아동의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20-10.

Bern,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 of Counsel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pp155-162

Bern, S. L. (1975). Sex-role adaptability: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34-643.

Bern, S. L. (1978). Beyond androgyny: Some presumptuous prescriptions for a liberated sexual identity.  
In J. A. Sherman & F. L. Denmark(Eds.), The psychology of woman: Future directions in  
research, New York: Psychological Dimensions.

David R. Shaffer(1988)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최순영?김수정 편(1997). 인간의 사회적?성격  
적 발달. 학지사

James E. Johnson(1999) 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신은수?김은정?안부금?유영의 공역(2001)  
놀이와 유아교육. 학지사

Smith, C. A. (1982). Promoting the Soci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Strategies and Activities, 박찬  
옥?지성애(1996). 유아들의 사회생활 교육. 이화여대출판부

http://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eb2.kwangju.ac.kr/~ykj 한국의 유아교육

http://edugender.or.kr 성교육 교사 홈페이지

http://kdta.or.kr 한국보육교사회

## 자연과 하나되는 로빈훗 산책

「부천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의 생태프로그램」

### 보는 자연을 생활 속의 자연으로

유아들에게 자연은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콘크리트가 가득한 환경 속에서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자연을 찾아 유아들에게 느끼고 함께 할 수 있게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된다. 그래서 부모들은 일주일에 한번 혹은 계절마다 자동차를 타고 먼 곳까지 나가 잘 다듬어진 자연을 보여주는 수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을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고 일시적인 기억, 추억을 만들 수는 있으나 생활에 파고들어 아이들의 심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릴 적의 모습을 살펴보자. 조금만 집밖으로 나가면 실개천이 있어서 그곳의 미꾸라지, 송사리 등 요즘에 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 민물고기들이 자연도감이 되어주었고, 집 앞·뒷산의 다람쥐, 토끼와 도토리, 솔방울, 이름 모를 풀꽃들은 훌륭한 소꿉놀이감과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렇듯 자연은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아름다운 사람됨으로 만들어 줄 수 있었다.

그럼 요즘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산업화, 핵가족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의 손에는 컴퓨터의 마우스와 텔레비전 리모콘이 쥐어져 있다. 가만히 앉아서 마우스와 리모콘으로 모든 것을 하는 놀이. 분명 편리해졌다는 장점과 많은 정보와 지식을 빠른 시간에 접할 수 있다는 좋은 점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유아기에 아이들은 심리적·정서적·신체적인 모든 면의 발달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 일과는 팽이 장난감과 경주용 자동차들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지낸다. 이제 이런 아이들을 자연 속으로 좀더 가까이 내보내야 한다. 도시에서 자라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가까운 산이나 공원을 산책지로 정하여 규칙적으로 산책을 나가보는 것은 일상이 되어야만 한다.

유아들에게 산책은 순수한 아이로서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게 되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마음껏 웃고 춤추고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는다. 또한 유아로 하여금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의 변화와 식물의 성장을 경험함으로써 자연의 조화로움과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이는 유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환경문제를 이끌어가는 동기를 제공해준다.

유아들은 나뭇가지와 나무껍질, 잎사귀 등으로 상상력과 창조력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놀잇감을 만들어 놀 줄 알게 된다. 이는 항상 고정적인 상품화 된 놀잇감에서 얻을 수 없는 창의성과 정

서적 안정감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 곳을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계절에 따라 혹은 날씨에 따라서 변화하는 자연을 접할 수 있어 생활 속의 자연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취지 하에 산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명 로빈훅 산책이라고 부르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도당산(부천시 원미구 소재)과 도당공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한 달에 2-3회 규칙적으로 산책을 나간다. 도당산은 낮은 편이라 유아기 아이들의 오르기에 적당하며 봄이면 벚꽃,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장미축제가 열려 볼거리가 지 다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곳이 없다면 가깝지 않아도 차를 타고 30분 내에 거리라면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나가볼만 하다.

6세(만 4세)반 로빈훅 산책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런 산책활동을 해요.

| 실시 시기 | 산책활동 내용                  |
|-------|--------------------------|
| 3월    | 산책을 떠나요!                 |
| 4월    | 도당산을 그려봐요.               |
| 5월    | 우리는 도당산 지킴이 (환경보호 프로그램)  |
| 6월    | 도당산에 있는 장미공원을 산책해요.      |
| 7월    | 우리들의 식물도감을 만들어요.         |
| 8월    | 자연물 채집과 자연물을 통한 미술활동     |
| 9월    | 밤을 주웠어요 / 나이트를 찾았어요.     |
| 10월   | 가을 나뭇잎 즐기기 / 나무가 되어 보아요. |
| 11월   | 새로운 산책로를 찾아서 떠나요.        |
| 12월   | 겨울에는 산과 나무들이 이런 옷을 입어요.  |
| 1월    | 동물들과 식물들의 겨울나기           |
| 2월    | 눈이 왔어요.                  |

이렇게 산책했어요(가을의 변화를 느껴요)

아래의 내용은 우리 어린이집 만 4세 유아들과 함께 9월과 10월에 걸쳐서 이뤄졌던 활동들이며 주로 가을이 되어서 달라진 자연의 변화들을 관찰했다.

#### 1. 가을이 되어서 달라졌어요.

목적 | 가을이 되어서 달라진 자연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가을이 되어서 달라진 자연을 관찰해 볼 수 있다.

준비사항 | 유아준비물 - 활동하기 편한 복장(체육복), 운동화, 필기도구, 채집용 주머니

교사준비물 | 구급약품, 자연물 채집용 가방, 사진기, 식수

활동내용 |

#### → 사전 이야기 나누기

유아들과 지난번 갔을 때 산의 모습을 회상해보며 가을의 변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오늘 산책할 코스를 함께 정해본다. 공원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이야기 나눈 뒤 출발한다.

#### → 공원에서 산책활동

##### ● 5월의 숲과 9월의 숲

5월의 새로운 산책로를 발견한 유아들은 다시 가길 원하였고, 유아들은 산책로 중간쯤에 있던 밤나무를 기억해낸다. "밤나무가 어디 있었지?" "선생님, 어- 밤이에요." "어- 저번에 초록이었는데 지금은 갈색이에요." "우리 주워가서 먹어요." 유아들과 나무에서 떨어진 밤을 주워 채집용 가방에 담는다.

##### ● 나이트를 찾았어요

산책 마지막 코스에서 나이트를 발견한 유아들은 나이트에 관심을 보인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 나무의 나이는 몇 살일까 세어봐요."

#### → 산책활동 후 교실활동

##### ● 밤을 꺼내봐요

산책로에서 찾아온 밤나무 잎과 나뭇가지, 밤에 관심을 갖는 유아들은 밤을 꺼내먹길 원하였고 밤이 날카로운 가시로 되어 있다는 것, 밤을 꺼내려면 장갑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 ● 나이트에 대해서 알아봐요

나이트에 관심을 보인 유아들은 교사와 함께 나무, 나뭇잎에 관련된 과학서적을 보면서 나이트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며 어린이집 유원장에 있는 나무들의 나이에 궁금증을 갖게 되어 교사와 유원장 나무들의 나이를 알아보는 활동을 해보았다.

#### 2. 가을 나무들

목적 | 가을이 되어서 달라진 나무에 관심을 갖고 신체활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해볼 수 있다.

준비사항 | 유아준비물 - 활동하기 편한 복장(체육복), 운동화, 필기도구, 채집용 주머니

교사준비물 | 구급약품, 자연물 채집용 가방, 사진기, 식수

#### → 교실에서의 사전 활동

가을산과 나뭇잎의 변화에 대한 사전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채집해 올 것인지, 가을 나뭇잎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색깔로 변하는지 이야기 나눈 뒤 산책활동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알고 출발한다.

#### → 공원에서의 산책활동

##### ● 나뭇잎이 떨어져 있어요(나뭇잎 채집)

유아들은 산책 활동 중 지난달에 보았던 나뭇잎들이 떨어져 있는 것과 색이 변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유아들은 각자의 채집용 주머니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들을 채집해본다.

"이건 은행잎 맞죠!" "이건 단풍잎이에요!" "어- 이건 그냥 초록잎이네."

##### ● 바람을 만났어요(신체표현)

떨어져 있는 가을 잎을 채집하던 유아들은 바람이 불면서 떨어지는 나뭇잎의 모습을 관찰하게 된다. 관찰을 통해서 유아들은 신체표현(나뭇잎의 여행)을 해보게 된다.

공원의 나지막한 언덕에서 나무, 나뭇잎, 바람, 해의 역할을 정하고 표현해본다.

#### → 산책활동 후 교실활동

산에서 채집해온 가을 나뭇잎을 보면서 침엽수, 활엽수 등의 나뭇잎의 이름과 명칭을 알게되며 나뭇잎 색을 변화시키는 실험활동을 한다. 채집해온 나뭇잎들은 유아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과학영역에 비치해둔다.

유아들은 공원에서 해본 신체표현을 다시 하길 원하였고, 교실에서 유아들과 나뭇잎 왕관, 해, 바람 등의 동극의 소품을 만들어서 확장해 보았다.

며칠 전 교실에서 유아들과 다람쥐의 겨울 준비에 관한 동화를 들은 적이 있었다. 다람쥐는 숲 속의 도토리나 밤 따위를 주워 모아 겨울을 준비한다는 내용의 동화였다.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산에서 밤 가져왔잖아요. 어떻게 하죠? 다람쥐가 먹을 게 없어서 슬프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다음에 산에 갈 때 다시 가져다 놔야겠어요." "아니야, 더 많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슈퍼 가서 사다주자." 아이들은 어느덧 산 속의 있는 다람쥐, 토끼들의 겨울준비까지 걱정하고 있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뤄지고 있는 산책활동의 가장 큰 교육적 효과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는 유아들의 모습인 것 같다. 매일 매일 산에 오르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자연 그 자체가 주는 교육적 효과를 새삼 깨닫게 된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배낭 속에 도당산에 있는 다람쥐들의 줄 밤을 하나 가득 담아 산책을 준비하고 있다.

## 우리가 본 산의 여름(만 4세)

### 유아들의 그림

- 로빈꽃 산책을 갔었는데 나무에 매미들이 많이 있었어요. 땀땀 이렇게 흘려요.
- 나무에 달팽이 같은 것(나무액)이 많이 있었어요.
- 나비들이 많이 날아왔어요. 나무 위에서 매미를 보았어요.
- 나무가 새끼(나무액)를 낳았나봐요.



☆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모범작 산책) ☆

5월 27일 장맛이온다 이쁜 이복음



수업한 후 심박을 나누어 주니 놀랐던 어린이들이 그림으로 글자로 표현해 보았음

● 모범작 산책 ●

장맛이온다 이쁜 홍승원

▲ 장맛이온다



○ 새로운 것들도 보았어요.

유달별이 나무에 꽃을 피웠어요.

모범작 산책

● 모범작 산책 ●

장맛이온다

▲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관찰하기)

바닷가에서 어서어서  
빈들레꽃 봐다

▲ 어떤 것을 주셨나요? (물음)

이쁜 꽃이랑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 그림으로도 그려주세요. (표현하기)



모범작 산책

● 모범작 산책 ●

장맛이온다 이쁜 안다연

▲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관찰하기)

제비나 비강미분수대 가지  
창세 텅이 난 꽃 바닷가에서  
나무얼매 가지

▲ 어떤 것을 주셨나요? (물음)

이쁜 꽃이랑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 그림으로도 그려주세요. (표현하기)



## 우리가 본 산의 가을(만 4세) 유아들의 그림

- 나무에서 나뭇잎들이 눈처럼 많이 내려요. 그런데 내가 서 있어서 다 맞았어요.
- 소나무를 봤어요. 그리고 분수대에서 물을 만졌는데 차가웠어요.
- 나무들의 색이 변했어요. 빨강 나무가 많아요.
- 나뭇잎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가방에 담았어요.



## 디딤과 한사랑 어린이집의 통합수업

먼저,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통합교육은 왜 중요하며, 왜 필요한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진흥법 6조 정의에 의해서 살펴볼 수 있다. "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정상적인 사회 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 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지발달이 아닌 사회성, 사회 적응 능력이다.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통합수업의 초점도 여기에 있다. 학습적인 수행능력 향상이 아닌 비장애·장애아동들 간의 체험학습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사회적 기술과 적응력을 익혀 나가는 것이다. 또 아동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비장애·장애가 더불어 생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행되고 있는 모든 활동은 교육적 내용(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장애아동의 발달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통합 활동을 구성해 나간다.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모든 아동을 획일적으로 대그룹에 참여하게 하는 활동이나 교사가 완전 주도하는 활동으로만 구성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때론 대그룹 활동도 하지만 소그룹(통합조)으로 나누어서 합동작품 완성하기를 하면서 친구 이름을 알기나 도움 주고 받기를 한다. 모든 활동에 장애 아동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으며(가끔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활동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임) 그 날 아동의 상태와 개인차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프로그램을 수정하면서 아동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동들이(디딤, 한사랑어린이 어린이집) 서로 만나서 헤어지기까지 통합 상황이나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를 유도한다. 수업시간 마침 후에도 점심시간이나 간식시간 등 자유활동 시간에서도 비장애·장애가 아닌 디딤 친구, 한사랑 친구로서 서로 쳐다보고 행동하도록 한다.

자유놀이에서의 통합은 비장애·장애 아동들이 함께 놀이를 하는 것으로(놀이 진행이 잘 안됨) 교사가 아동의 적응 정도에 따라서 개입과 분쟁 중재를 조절하면서 아동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도 도움을 준다. 비장애, 장애 아동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여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리도록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아동 서로 간에 해결하도록 놔두지만, 보통은 비장애 아동들이 장애 아동의 고집에 눌러 울거나, 장애 아동이 비장애 아동의 힘에 눌러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

통합수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능력, 신체적 조건, 성격 등 모든 아동(장애, 비장애)의 다양성은 개성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결국 통합교육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도 이런 것이 아닌가. 통합교육은 장애 아동

이 비장애 아동 쪽으로 옮겨가는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비장애 아동 쪽에서도 장애 아동 쪽으로 옮겨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

#### ※ 예시) 통합수업 프로그램

파릇파릇한 새싹이 겨울잠을 깨내고 기지개를 펴는 봄이 왔어요.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신나게 뛰며 즐겁게 놀아요.

#### 1. 자기 소개

그동안 못 보았던 친구들한테 자신을 소개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 2. 친구랑 장애물 피해서 가기

우리 손잡고 조심해서 같이 가자.

(친구는 눈을 가리고 나는 친구를 도와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피해서 무사히 목적지 까지 갔다 오기)

#### 3. 공 이어주기

누가 누가 빨리 하나 내기 해 봐요.

(일렬로 앉아서 공을 머리 뒤로 넘기기)

#### 4. 차 타고 과자 먹고 오기

빵- 빵- 맛있는 과자 먹으러 가야지-

(친구는 차를 타고 나는 뒤에서 밀어 맛있는 과자를 나누어 먹고 오기)



☞ 때 아닌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을 썼다. 오늘은 유치원 다니는 딸의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며, 인천보육교사회 양성평등 육아문화확산을 위한 거리문화제가 있는 날이다. 인천보육교사회 행사는 3시부터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딸 유치원 체육대회에서 몸풀기를 하고 오후는 남편이랑 교대를 하였다.

바람이 몹시 불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벌써 회원 선생님들이 와 계셨다. 역시나 바람 때문에 게시판이 넘어지고, 홍보물이 날리며 행사장인 문화예술회관 광장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양성평등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문화제 사회를 보기로 하였지만 막상 마이크를 잡을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3시부터 시작할 행사는 3시30분이 되어서야 진행되었다. 회원들이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홍보물을 나눠주고, 페이스페인팅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지만, 문화예술회관 광장은 한산하기만 하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끝까지 행사는 마쳤지만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 사회자로서 열심히 준비 못한 아쉬움.

하지만 인천보육교사회 회원 모두가 바람을 맞으며 끝까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함께 행사를 마쳤다. 우리 모두가 양성평등한 육아문화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거리문화제를 준비하신 인천보육교사회 선생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보육교사회 소속 선생님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일당 백인 것 같아요.

제목이 너무 길어 계속 입 속에서 맴돌던 양성평등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문화제를 통해 지금까지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양성평등이란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같다.



어느날 갑자기, 정말 어느날 갑자기 박정애 선생님의 연락을 받았다. 경기지부 대표(?)로 거리문화제 준비팀에 추천(?)되었으며 몇 일 뒤, 먼 대전에서 회의를 한다 하셨다(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이기에 이것저것 많이 접하고 부딪히며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 내실 있는 든든한 일꾼을 하나 키워보겠다는 선배님들의 생각이신 듯...).

갑작스런 연락에 놀라기도 하였지만 기차 타고 대전에 간다 하신다.

호호... 좋다. 얼마만에 타보는 기차였던가? 회의에 가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이라기보다 멀리 여행을 간다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그날따라 비까지 내리려고 하늘은 한껏 찌푸려 있었다. 무사히 회의에 다녀왔고 문화제 행사를 해야 하는 날짜를 몇 일 남겨 두지 않고 경기지부 임원회의를 하였다(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내가 대표회의에 다녀왔기 때문에 문화제 준비는 내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 하신다. 우째 이런... 아무것도 모르고... 경기지부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경기지부는 수원 효원공원에서 문화제 행사를 했다.

그림 사진 전시, 잡지 플러쥬(잡지에서 아빠·아가가 함께 있는 사진을 오려서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지 물어본다) 전시, 앙케이트 조사(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런 때 좋아요'), 엄마·아빠·아이가 함께 손도장 찍기(인기 썰!!!).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 바로 자전거 타고 홍보하기!

이 홍보 아이디어는 회의를 하는 중 한 선생님께서 모 나이트클럽 홍보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재미있었다시며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왜 다들 아실까요- 5-6명 정도 되는 머리색깔 헤어스타일 독특한 아씨들이 똑같은 옷 입고 자전에 '무슨 나이트클럽', '부킹100%,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라고 쓰인 피켓하나씩 쫓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5명 정도 되는 교사들을 선두로 뒤에는 귀여운 아이들까지... (멘트를 뭐라고 썼더라...)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던지 행사하는 내내 많은 가족들이 참여해 주었다. 주말이면 일주일 피곤함에 지쳐 하루종일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솔직히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 아빠 목마 타고 엄마 손잡고 나들이 나온 아이들 표정은 부러울 정도로 행복하고 따뜻해 보인다.

거리문화제 주체를 맡은 나로서 막상 준비해야 할 날짜가 다가오니 걱정부터 앞섰다. 거리 캠페인도 지금까지 딱 두 번 해 보았을 뿐인데 이번엔 그런 캠페인도 아니고 이름부터가 '문화제'라니 나를 포함한 회원들 모두 겁부터 먹을 수밖에... 그래도 거리문화제가 있기 전 '양성평등 의식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워크샵'을 진행하고 각 지부에 있는 거리문화제 준비팀이 모여 기획회의를 하고 나니 그런대로 감을 잡아가며 준비할 수 있었다.

'이름이 '문화제'인 만큼 시민들의 참여와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야 할텐데...'라는 마음으로 문화제를 준비했다. 아이들과의 생활에 바쁜 와중에도 회원들 모두 역할을 나눠 자기가 맡은 부분을 열심히 준비했다. 거리문화제가 있기 며칠 전 최종점검과 마무리를 위해 모일 수 있는 회원들이 모두 모였다. 손이 많다보니 정말 '똑딱 똑딱' 준비를 마칠 수가 있었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대부분 유부녀들... 어느새 '악자지절' 수다가 이어지고 있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맛있는 통닭과 생맥주가 곁들여졌으니 유부녀들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사실 회원들이 모여서 무슨 일이든 할 때면 일보다는 이런 재미가 더 쏠쏠한 것 같다.

드디어 행사 날, 아이들과의 바쁜 일과를 마치고 공원으로 향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당으로 '부모가 함께 하면 아이의 기쁨은 두 배'라는 제목을 단 손도장 찍기,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엄마 아빠의 약속지, 양성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o, x 퀴즈가 있었고, 문화 마당으로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사물놀이, 할머니들의 멋진 한 춤, 그리고 대학생 언니 오빠의 힙차고 경쾌한 율동 등 썩 내놓으라는 실력은 안되지만 아이들의 사물놀이는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기에 충분했다.

그 외 전시마당으로 양성평등의 내용과 따뜻한 가족의 사랑의 내용을 담은 그림책 전시와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바라는 세상'이란 제목을 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공부방 아이들의 그림전시를 하였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모습과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 그리고 여자아이 남자아이들이 자기의 성에 구별 없이 다양한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 등의 다양한 사진을 전시했다.

우리가 계획한 시간은 모두 2시간, 막상 가서 전시 준비하고 문화마당 펼치고 나니 두 시간이 짧은 생각도 들었다.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그만큼 회원들 모두 열심히 행사에 임했던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이번 문화제의 소득이라면 회원들만이 준비하고 치른 행사가 아닌 회원 가족들 그리고 아이들, 또 아이들의 부모와 가족들까지 준비를 같이하고 함께 한 행사였다는 거다. 조금은 이번 문화제의 제목에 걸맞는 행사가 아니었나 싶다.

얼마 있으면 나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된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 부모로서 책임감은 더해만 간다. 우리 두 아이도 태어난 성별에 관계없이 저마다의 개성을 잘 살려 건강하게 키워야 할텐데...

양성평등한 육아문화를 가꾸기 위해선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요즘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 평소에 말 수 적은 내가 부부간 대화 시간을 늘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거리문화제'를 마치고 난 또 하나의 작지만 소중한 결과물이 아닐까?

이번 거리문화제를 준비하면서 남편의 도움이 컸다. 세상,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나의 일을 격려하고 도움이 되어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현장소식

4

## 양성평등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보육교사 의식개선 워크숍을 치러내며...

김금자 · 목포, 새꿈담어린이집

좋은 내용이긴 한데 몇몇 안 되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지역에서는 아직 한 번도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모임이나 행사를 진행해본 적은 없었던 터라 이것을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과연 할 수 있겠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왔다. 꼭 해야만 하는 거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등등 이모저모 우리의 자로 열심히도 재다가 한번 해보자라고 반반의 동의로하기로 결정 9월 14일로 일정을 잡았다. 일정은 잠깐 잡았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할지, 중앙에서 이것저것 다 준비하신다고는 하는데 그냥 우리는 참석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일단 많은 시설에 알려내고 함께 할 수 있는 교사들을 최대한 모아보자는 게 우리 생각! 이런... 그렇게 고심하고 잡았던 일정에 이런 커다란 오정이!! 그 날은 서울에서 민간 보육시설 보육인 대회와 교재교구 전시회가 있단다. 4명의 회원들이 여러 원을 나누어 전화 통화를 했지만 안내문을 받아 보지 못했다고 하거나 민간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인 대회에, 그리고 국공립은 전시회에 가기로 했다고 한다. 좀더 좁은 목포 지역에서 글썽 이 삼백 명의 보육교사를 제외하고 다니 암담...

박정애 선생님과 통화 후에 접수 정도를 지켜 본 다음에 할 건지, 연기할 건지를 결정하기로 하고 하루 하루를 보냈다. 3개 시설에서 20명 정도의 참여 인원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결정. 9월 14일 오후 3시부터 카톨릭회관에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다소 별령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시간이 더해 갈수록 열기는 더해갔다. 처음 만나는 선생님들과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워크숍 시간이 짧음을 아쉬움을 표하면서 다음을 약속하고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기대한 양만큼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어찌 한번으로 다 채울 수 있으랴. 하지만 지역에서 새롭게 양성평등 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보육교사 의식개선 워크숍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변화이었지 않았을까 하고 아직 몇 안 되는 보육교사 회원들이 우리 어린이집에만 국한되어 있어 보육교사들과의 만남에 자신이 없었던 우리 회원들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자리였던 것 같다.

여러 광역시 단위에서 진행되었던 워크숍을 우리 목포에서도 치르게 해주었던 한국보육교사회 중앙에 감사드리구요, 9월 14일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 우리 언제 한번 다시 뭉쳐야죠? 더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현장소식

5

## 아빠들에게 육아 참여의 기쁨을!

안미경 · 부산, 해맑은 세상어린이집

10월 27일 제법 쌀쌀한 날씨 속에 아이들의 인파가 많은 곳 중 하나인 어린이대공원에서 양성평등홍보 거리문화제를 가졌습니다. 이 날 따라 아주 추워서 모두들 움츠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어린이대공원엔 의외로 아빠들의 외출이 많았습니다.

부산지부에서는 각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퇴근한 아빠들의 집에서의 모습, 나는 커서 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등의 주제로 그림을 그려와 전시를 하였고, 아빠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녀들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적어 아빠 손바닥을 찍어 선물하기, 아이들의 소원 적기,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재미난 동화책 전시 및 판매, 아이들의 바다 페인팅 등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는 미정샘을 비롯해 모두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주 열심히었습니다. 나들이 때 주운 나무로 직접 100여 개가 넘는 연필목걸이를 만들어 나눠준 고릴라와 코끼리 선생님 부부들의 모범적인 모습도 눈에 띄었지요.

추운 날씨라 많이 왔을까 은근히 걱정이 되었는데 많은 가족들이 나들이를 나와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들의 참석이 의외로 많이 이뤄졌으며 딸, 아들 구분 없이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란 다짐의 말을 남기고 가신 분도 있었지요.

부산지부 회원들의 캠페인 출석이 부진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남녀가 명확히 구분되어진 우리 사회구조 속에서 아주 필수적인 캠페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10/27 양성평등육아문화제 '아빠의 평등육아 참여 서약서'

## 부드러움과 당당함을 함께 지니길...

황호정 · 서울, 행복한우리어린이집

양성평등 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어린이집 역할 세우기 거리문화제가 서울에서는 10월 19일 대학로 마로니에 문예회관 앞에서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반대하는 우주인의 메시지를 전하는 파와, 낙태를 반대하며 혼전순결을 주장하는 파 사이에서 양성평등한 육아문화를 만들고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중 으뜸은 어깨동무 어린이집 바다반 친구들의 공연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풍물공연 및 노래 공연과 놀이공연도 해주고 박정애 선생님 아들 송필이가 외발자전거도 타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손도장 찍기의 인기도 대단했구요, 양성평등 육아문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소원지 쓰기도 재밌었습니다. 그 외에도 얼굴에 그림 그리기, 책자 나눠주기 등등의 재미있는 행사들로 많은 사람들이 양성평등 문화에 대해 알고, 보육교사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거리문화제 때 소원지 판에 있던 소원 몇 가지를 옮겨 봅니다.

- 예쁜 우리 해원아.

엄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해원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다오.

사랑해, 해원아.

- 보람아!

지금온 아직 어린이지만 점점 자라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라지고 있는 밝은 공기가 아쉽다. 네가 지키렴.

- 내 아들 송필아!

네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살리면서 살 수 있는 평등세상을 만들기 위해 엄마는 노력할게!

- 성연아!

부드러움과 당당함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기를...

- 사랑하는 아들 건욱아!

정말 건강하고 성실하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건욱이 파이팅! 엄마가 사랑하는 건욱이에게 부탁한다.

- 한범, 한비아.

건강하고 바르고 착하게 무럭무럭 자라라, 사랑하며 살아!

- 성준아.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렴.

-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건강하게 자랄게요, 사랑해요.

- 엄마 아빠 고마워요.

키워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 엄마 아빠 좋아해요.

우리 인헤이도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씩씩이 보람이



## 아이들의 생활환경 꾸미기

황영현 · 건축가

작년 가을에 수유동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설점검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시설점검을 부탁한 선생님께서 "너무 많이 낡아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라는 조언과 함께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은 정말 많이 낡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1층짜리 조그마한 단독주택에서 특별한 개보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 계시는 원장님, 보육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그 어린이집이 참 좋아졌습니다. 사실 그곳은 방수를 해도 매년 천장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고 특별히 여러 색깔의 알록달록함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수십 개의 어린이집을 설계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했으며 대부분이 대기업 후원과 정부 발주의 시설들이었습니다. 보육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모두가 넓은 방에 잘 정리된 가구에 최고의 시설들을 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수유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낡은 주택을 정갈히 닦고 정리하였으며 가구나 아이들의 용품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방과 규모에 맞는 창이 적절히 있었고 그것이 충분한 환기와 채광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아이들은 그곳에서 가정의 연속감을 느낄 것이고 따뜻한 햇볕과 충분한 환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밝게 유지시켜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교사들께서 너무나 많은 생각과 배려를 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교사들의 생각에 다소 건축적인 사고를 더 하여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보육공간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점들 각론적인 형식으로 열거하겠습니다.

### 1. 보육실

보육실에는 교구장과 어린이 사물함, 매트리스나 침구 또는 기타 장남감을 보관하는 불박이장이 필요하다.

#### 1) 교구장

- 교구장에는 교육용 교재와 교구들이 수납된다. 교구와 교재는 그 교육 프로그램의 방식에 따라 크기 및 부피가 다양하므로 필히 교사 및 원장과 사용 교재·교구에 대한 원

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 내부에 대한 가변성의 여지를 고려한다. 교구장은 사용 및 수납이 어린이들에 의해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문을 달지 않고 개방하여 잦은 개폐로 인한 철물의 파손 및 오염과 손가락 끼임과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불박이장

- 어린이집은 영유아 모두가 수면시간을 가진다. 그러므로 침구류의 보관을 요하며 교육과정의 변경 및 다양화로 인해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않는 교구 및 교재의 보관을 요한다. 이러한 물품들의 보관을 위해 문이 달린 불박이장이나 교구장을 필요로 한다.



#### 3) 사물함

- 어린이들의 개인 사물 즉 옷, 가방 개인용구들을 보관하는 기구이다. 어린이는 스스로 사물을 챙길수 있는 영아와 유아(3~7세)의 키 차이가 많게는 50cm이상 차이가 나므로 연령에 따른 자율적 사물함의 형태고려가 필요하다.
- 사물함에는 가방, 코트 및 점퍼 등 겉옷, 학용품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의 배려가 필요하다.



### 2. 수유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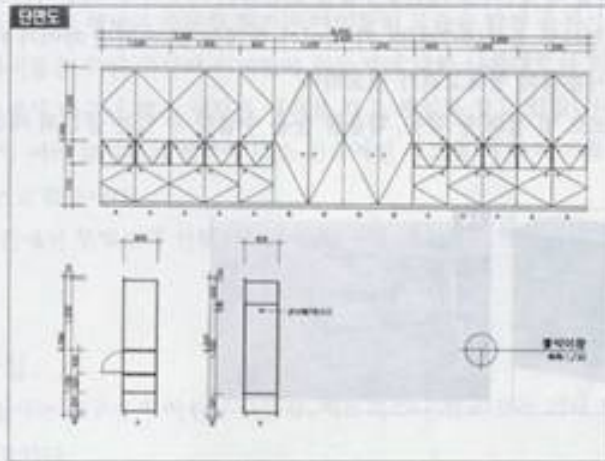
수유실은 영아를 위한 공간으로 보육실에 비해 대단히 정적인 공간이다. 이곳에 대한 가구로는, 조유를 위한 SINK시설과 영아의 목욕이나 세척을 위한 목욕시설, 아기용품들을 보관하기

위한 가구와 침구류 보관장, 혹은 아기용 침대가 필요하며 공간이 허락한다면 교사의 편리한 수유를 위한 안락의자를 배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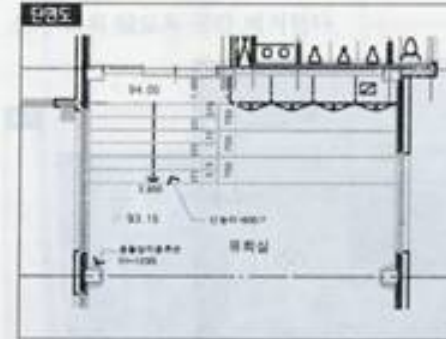
### 3. 교사실

교사실은 교사의 회의·교재 준비, 개인사물함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적절한 가구가 필요하며 특히 교재 준비실이 따로 없을 경우는 가구의 배치에 유의하여 교사의 개인업무와 함께 교재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 4. 유희실

유희실은 평상시에는 어린이들의 체육이나 운동 및 동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1년에 몇 차례의 행사를 위해 사용된다. 그러므로 운동용구나 동적인 놀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설치되게 되며 이러한 가구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및 일정규모 이상의 붙박이장이 필요하다. 한편 행사를 위한 무대시설이 필요한데, 상황에 따라 무대를 조립식으로 조성하여 행사를 제외한 시기에 놀이시설의 확대사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관 공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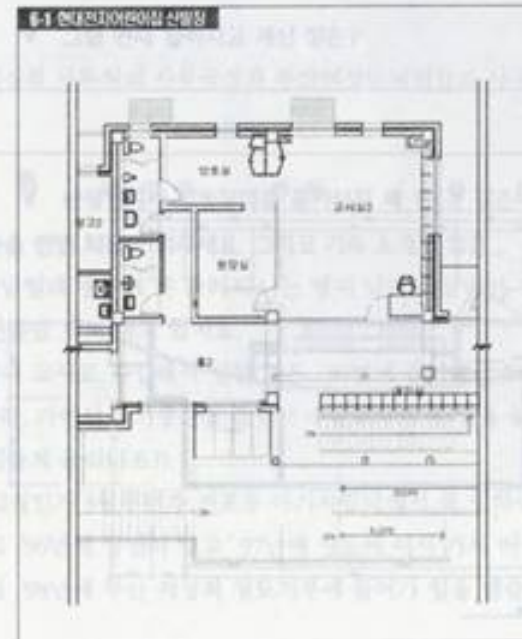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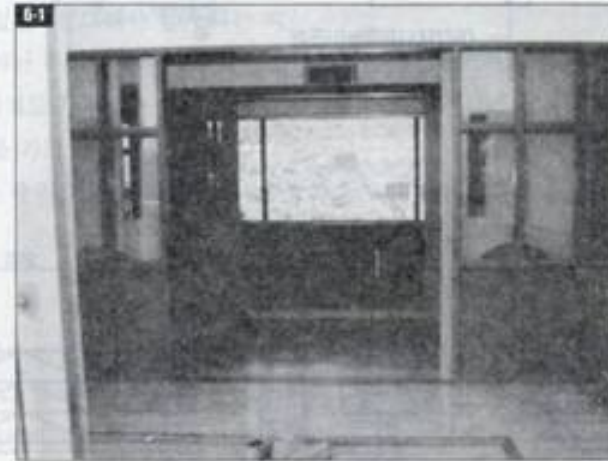
## 5. 식당 및 주방

- 식당에는 어린이들의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와 배식대가 필요하다. 배식대는 주방에서 배식을 하는 어른 스케일과 배식판을 받는 어린이 스케일을 동시에 배려하는 배식대의 계획이 필요하다. 식탁은 입식과 좌식식탁으로 구분되며 입식인 경우에는 영아와 유아의 키차이에 대한 배려가 된 의자의 선택이 요구된다.
- 주방은 소규모인 경우에는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싱크시설규모에서 조금확대하여 설치해도 가능하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인원수에 알맞는 주방기기시설의 배치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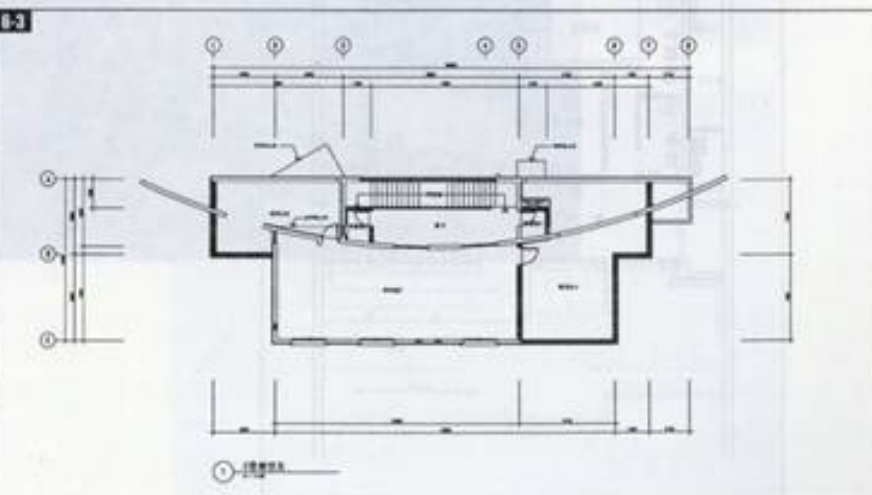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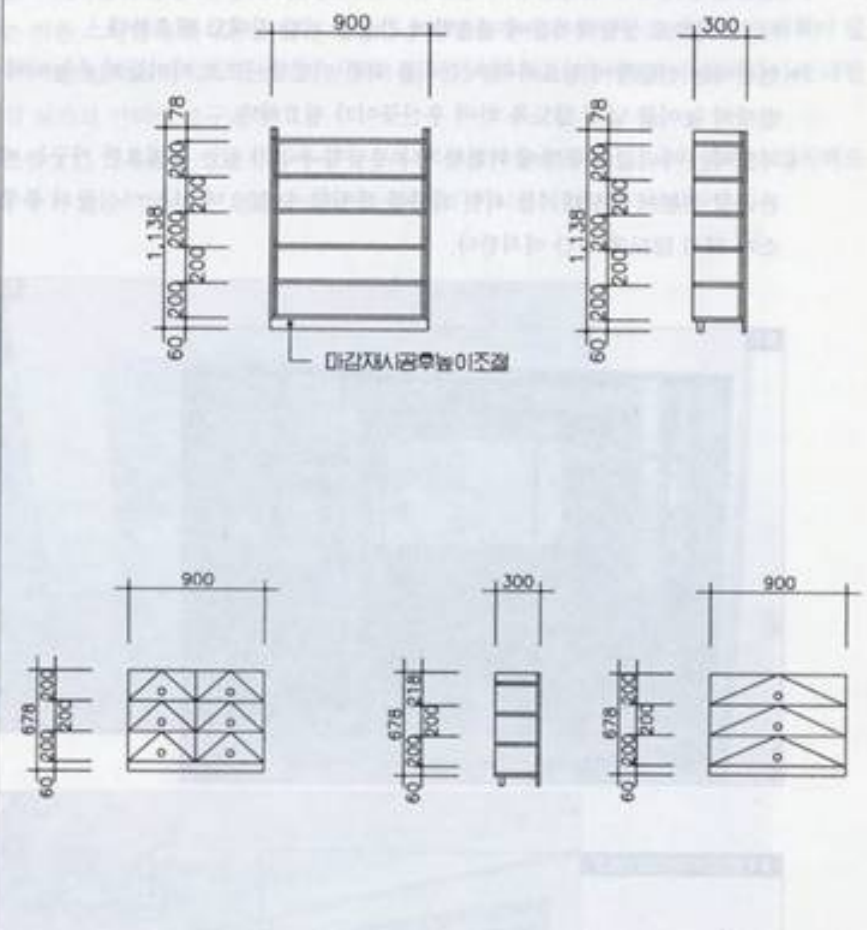


## 6. 기타시설(원장실, 현관, 복도, 화장실 등 기타 디테일)

- 원장실은 상담과 선생님이 수업중일 때 아픈 아이들의 간호를 위한 양호시설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상담테이블이 필요하며 간호를 위한 침대도 필요하다.
- 현관에는 신발장이 필요하며 어린이를 위한 신발장이므로 아이들의 손높이에 적절한 신발장의 높이를 넘지 않도록 하며 우산꽂이가 필요하다.
- 복도에는 아이들의 동행에 위험하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는 불필요한 가구는 배제하며 현관근접 부분에 부모대기를 위한 의자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아이들의 동행에 위험요소가 되지 않도록 공간 배치한다.



6-2 영주분원 어린이집 계단실 평면도



## 인물탐방기

김진희 · 부산, 포구나무어린이집

### 이원경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기분 좋아지게 하는 여자.  
보고 싶은 여, 그래서 힘이 되는 여.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아름답기까지 한 사람.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른 강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전 지탁연 시절에서부터 10년을 넘게 한 길을 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은 우리 회의 후원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원경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영도에서 전포동 아기자람터에 상업이를 데려다 주고 양성사무실로 일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상업이나 저나 썩썩하게 잘 다닙니다. 저는 요즘 환경사업과 부산여연 부산여성회 사무국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럼 현재 일하시고 계신 장은?

부산여성회 사무처의 사무국장과 부산여성단체연합의 사무국장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활동무대를 옮기신지 꽤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전 지탁연 시절에서부터의 활동을 한번 되돌아 봐주세요. 그리고 가족 소개도 잠깐...  
부산경남일대 병원에 약 팔러 다니는 뽀뽀 남편과 양띠인 저, 그리고 쥐띠인 상업이가 한 지붕 아래서 한술밥 먹고 살고 있지요.  
지탁연에 교사로 가입해서 일한 것은 '90년에 졸업해서 그 해 9월인가 우암동의 꼬마동산, 구포꽃들나라, 가야의 아가동산을 돌면서 수습교사로 석 달을 돌아다니며 일한 것 같습니다(요즘도 이렇게 힘들게 돌리나요?).  
'91년 2월인가 3월부터는 전포동 아기자람터에서 꼭 일하면서 부산지역탁아소협의회장도 '95년에 하고 '96년에 상업이 낳고 '97년에 영도에 이사 가서 어린이집 해보겠다고 버둥거리다가 여의치 않아 '98년에 부산 여성회 영도지부에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활동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너무 많네요. 부산 보육교사들과 여름수련회에서 계룡산을 1등으로 넘어와 선물로 시바스 리갈 양주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부산으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교사들이 돌아가며 사이좋게 한 모금씩 마시고 쪽 자면서 내려왔던 게 생각나네요.

여성회로 장을 옮기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사를 하면서 한마음 한뜻을 가진 보육교사가 없었고 솔직히 보육활동을 계속 할 의지가 있다면 동료교사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성절도 급하고 병치레가 심한 아이의 육아도 힘들고 시간이 갈수록 여성문제 해결에 더 부딪쳐 여성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교사로서 활동을 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이와 교사의 권리와 건강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었을 것입니다(실현 가능한 희망사항).

요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해 들어 두 달에 한번 꼴로 문상을 갔습니다. 호상도 있고 완전히 초상집도 있었지만, 큰 병원에 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심장병 아니면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특히 활동 중에서도 가장 힘든 보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네요. 꼭.

많이 바쁘신 걸로 아는데 육아문제는 어떻게?

아기자람터 종일반에 다니니 문제는 없고요, 저녁활동이 있을 때는 여동생과 친정엄마가 봐주고 있어요.

벌 때마다 힘차신데 그 비결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수다 떠는 것을 즐기다 보니... 사람 = 힘, 기쁨.

지금까지의 활동 속에서의 간단한 반성과 함께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난날을 돌아보면 생각이 짧아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인정과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뒤 모습은?

글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전의 저와 현재의 저는 변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 10년 후 얼마만큼 변화했습니까? 변함 없는 싱싱한 여성활동가로 남고 싶습니다.

후원회원으로서 회에 바라는 일이나 후배 교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때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한 마디?

후배교사들은 이번에 실린 제 사진의 얼굴을 잘 기억해서 만나면 아는 척 하면서 선배님 선배님 하고 부르면 무조건 제가 술 삽니다.

그때 그 시절 함께 일했던 동무들아! 연락 좀 해라. 나도 할게.

그리고 아무 탈 없이 건강해야 된다 잉. 알았제!



## 아기자람터 아이들의 이야기

박찬주 · 부산, 아기자람터어린이집

### 01 솔비는 양성평등주의자

솔비(7세), 솔범(5세) 이를 할머니께서 하원시키시는 날의 이야기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솔비는 잠시도 가만있지를 않고 있었고, 솔범이는 할머니 옆에서  
안전하게 앉아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열자리의 낯선 할머니께서 한 마디를 하셨다.

낯선 할머니: 동생은 남자라고 점잖은데 누나도 안전히 좀 있어라.

솔비·솔범할머니: (미안한 마음에 솔비에게) 동생은 남자라고 이렇게 의젓하게 있는데, 누나가  
되어 가지고 좀 안전하게 있어라.

솔비: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빠져서 큰 소리로) 할머니, 할머니는 참 모르네. 우리 엄마가 남  
자나 여자나 똑같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깐 아빠가 '여자가, 여자가' 하는 게 할머니 때문이네. 할  
머니가 그렇게 키워서 그렇네.

솔비·솔범할머니: .....

### 02 미술관에서 있었던 일(1) - 개집(?)

설치전을 보고 있는데 작은 집이 있었다.

교사: 애들아! 이게 뭐지요?

아이들: 개집이에요.

교사: (설마 개집을 전시할까... 제목을 보니 '유토피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개집=유토피아)

### 03 미술관에서 있었던 일(2) - 핀트가 딱딱

환경 미술전을 돌아보며 어느 그림 앞에서

교사: 애들아, 여기 술 좀 봐. 너무도 예쁘네

아이들: 아! 핀트가 딱딱이잖아!

교사: ?????

(그림에 유화로 표현된 나뭇잎의 느낌이 핀트핀트하고 딱딱하게 보였나 봅니다.)

### 04 성일이 이야기(1) - 성일이 꾸꾸

오늘 아침도 성일이는 집에서 놀이방 갈 준비에 태평이다.

엄마가 동생 꾸꾸(젓)를 다 먹이고 왔는데도 성일이는 밥을 안 먹고 밥상에 밥이  
그대로다.

엄마: 성일아, 엄마가 엉덩이도 아프고 머리카락도 빠지는데 성일이라도 엄마 말 안 들어주면 아  
파서 입원해야 될지도 모른다.

성일: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동생 태어날 때처럼?

엄마: 그래.

성일: 그럼 동생은 어짜고, 아빠도 일하러 가뽏는데.

엄마: 동생은 성일이가 봐야지.

성일: 배고파서 울면 꾸꾸는 어짜고?

엄마: 성일이가 봐야지.

성일: (갑자기 자기 가슴을 쳐다보더니) 그럼 내 찌찌에 구멍 뚫어야 된다 말이가?

엄마: 안 그러면 동생 배고파서 계속 우는데.

성일: (울상이 되어서) 바늘로 찌르면 얼마나 아픈데-

(갑자기 뭔가 해결책을 찾아낸듯 웃으면서 엄마에게 달려들어선) 엄마! 아프지 마라. 내 팔 잘-들  
올게.

### 05 성일이 이야기(2) - 패트와 매트

성일: 선생님, 패트와 매트는 어느 나라 꺼예요?

교사: 글썽? 영국인가? 잘 모르겠네

성일: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말 못 해요? 말 못하는 사람만 살아요?

교사: .....

패트와 매트는 말이 나오지 않는 비디오였다.

## 하나로 사는 세상을 위한 아이들

이상옥 · 서울, 어깨동무어린이집

우리 아이들의 2002년 10월의 어느 날.

오늘은 종길이의 연장활동이 있는 날. 오후시간에 종길이란 일반아동 20명은 영등포로타리에 있는 영등포 도서관에 가기로 했다. 걸어서만 30분 거리,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로,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말이다.

종길이는 자폐아다. 그것도 공격성이 아주 많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서 웬만한 어른도 힘이 딸리는 아이인데, 오늘도 짜증에 짜증을 마구부리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죄다 때리고 치고 꼬집어대기 일쑤다. 물론, 맑은 아이는 아파서 울고 있다. 때로는 교사도 운다. 그래도 우리의 종길이는 우리 반의 여자친구는 물론, 남자아이들에게까지 인기가 아주 많은 귀염둥이 아이다. 너무나 어른스럽게 종길이를 이해해 주고 배려해주는 아이들이 있어 울고 나도 금세 "선생님! 나 종길이 도와미 할래요!"라며 보채기 일쑤인 우리의 기특한 아이들.

6살, 7살, 덩치 큰 종길이는 8살.

울망울망 아이들이 좁고 복잡한 영등포거리를 길게 늘어서 확보하니 각양각색의 반응들이 나온다.

"아니~ 이 시간까지 학교가 안 끝났나?" (초등학교1년생으로 착각함)

"아~ 복잡한데~ 빨리빨리 안 가구 뭐해!!!" (우락부락 잠꼭노정상 아저씨!!)

"아~ 너 몇 살이니?" (귀여워 죽겠다는 표정의 아저씨와 아줌마들!!)

아무튼, 우리의 간 큰 선생님은 항상 뻔뻔스런 표정으로 아예 대중의 관심을 무시한 채 오로지 아이들만 바라보며 혼자 흐뭇해하며 앞장서서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마침, 바람이 불고 거리에 커다란 포플러 나무가 펄펄고 가을의 정취를 도심 안에서 감상도 하면서 말이지요.

도서관에 도착했어요.

선생님은 목하 속으로 고민 중.

- 혹시, 종길이가 짜증을 부리면 어쩌나-

-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뽀뽀 맞으면 어쩌나-

-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난리(?)치면 어쩌나-

들어가기 전에 단단히 주의를 줍니다.

"얘들아! 들어갈 때는 조용하~ 그리고, '안녕하세요!' 크게 인사하기다!"

아이들은 혹여라도 못 들어가게 될까봐 "네!!" 이구동성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쫓겨날까 걱정하면서 흠~ 기침 한 번 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아동도서관 현관문을 엿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상냥한 얼굴로, "안녕하세요!" ..

눈이 동그란 사서 아줌마가 의아한 듯 바라보다가 연이어 아이들이 물밀 듯이 들어오며 "안녕하세요!"하는 인사에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는 어정쩡 일어서는 아이들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저어, 어디에서 오셨어요?"

"초등학생은 오전에 도서관 수업이 있는데...?"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집에 안..."

"아~ 예예~ 그게, 저희는 어깨동무 어린이집에서 왔는데요, 아이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도서관에 왔어요. 그리고 저희 어린이집은 장애통합을 하고있는데, 지금 한 명의 장애아동이 함께 아이들과 책을 보러 왔거든요. 아주 좋은 경험일 것 같아서요. 괜찮겠지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승인해달라는 요청이다.

승인을 받고, 주의사항을 듣고...

다행히도 아동도서관 안에는 우리 밖에 없었고, 특별히 만지를 걸지 않는 사서아줌마를 만나서 원하는 책을 볼 수 있었다.

종길이는 간헐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책을 보았지만, 글을 알기 때문에 책에 관심이 많았다. 책도 목록에서 골라 원하는 것을 보고,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주고 있었다. 오히려 일반아동들 중 산만한 아이들이 책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욕심만 잔뜩 부리다가 그 많은 책들을 두고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평소 우리 아이들의 책 읽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쉽지만 30분간만 책을 보고는 나와야 했는데,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호떡을 사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래, 호떡 대신 봉어빵이다.

가는데 30분, 책 보는데 30분, 오는데 30분. 걷는 시간이 더 많은 탓이었나? 배도 고프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시렁궁시렁거리는데, 급기야 햄버거를 사달라고 한다. "안~돼!!!" 단호히 거절을 하자, 갑자기 구호가 터져 나왔다.

"햄 버 거!! 햄 버 거!!"

그것도 일사불란 정리된 구호였다.

아~호~ 폭 팔 러~

영등포에는 사람이 많다. 좁은 인도에 노점상까지 즐비하고 왕래하는 사람도 많은데서 우리의 아이들이 길을 절반이나 차지하고는 그 조그만 너석들이 구호를 외치니 단연 돋보일 밖에... 사람들은 재미있어 하고 아이들은 아예 손까지 위에서 아래로 들었다 내렸다하며 질서정연히 햄버거 사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따라 오고있었다.

설마, 조금 하다가 말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다. 도서관에서 나와 봉어빵 먹은 곳에서부터 영등포역 지하도 안까지 와서도 즐기치게 햄버거를 외쳤다. 얼굴이 마구 붉어지고, 당황한 선생님, 돈도 없는데... 아이구 이 너석들을 어쩌지?

난감 난감~ 그래도 들어줄 수 없어! 여기서 내가 지면 이제 예들이 나한테 댄스 이럴꺼란 생각에 절대 들어줄 수 없다면서 아이들과 선생님과와 팽팽한 노조대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결국은 졌다.

내가 졌다~ 그래 사줄게!! ㅠ.ㅠ

그 소리와 더불어 아이들은 와~아~ 또 한 차례의 함성을 떠나가도록 질러대는 것이었다. 솔직

히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지만 아니, 어찌면 저렇게도 씩씩하나? .. (자랑 자랑~)

가만히 보니, 요 녀석들이 함께 의논을 해서 무어라 할 것인지 서로 정하면서 거기에 맞추어 함께 구호를 외치는 것이었는데, 끝이어서 같은 목소리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또 구호를 하고 있다. 정말, 웃음이 나왔다. 그날, 난 햄버거에 봉어빵에 아이들한테 완전히 당했던 날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종길이가 햄버거 소리에 가만있을꼬나? 평소 치킨에 햄버거를 엄청 좋아하는 종길이가 한 술 더 떠 콜라에 감자칩까지 찾는 바람에 난 완전히 영등포역 롯데리아에서 KO 당한 날이다. ..

우리아이들은 6살과 7살로 된 일반아동과 7살 8살 9살의 자폐아동이 함께 하는 장애통합반이다. 일반아동 역시 개인별 발달속도가 확연히 다르고 6세와 7세 사이에서도 커다란 발달의 간격이 있는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쉽지 않다. 여기에 자폐아동을 함께 하려면 원만하고 진정한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환경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교육은 교사의 많은 인내와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된다. 조건으로 따지면 엄연한 사실이지만 다행히도 우리 반 선생님들은 둘 다 착한 분수(?)께가 있어서 힘든 일도 껴잡은 잘 하는 편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플지언정, 금전적으로 아쉬울지언정 말이다. ..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로 사는 세상을 위한 초석이다.

어린 나이에 저보다 덩치 큰 종길이, 예인이, 연신이의 모든 있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보고 있고, 그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해 주고 또는 교사가 했던 그대로 가르쳐 주려 애써주는 모습들이 너무나 기특한 아이들이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조금이라도 배우게 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사는 행복해 한다.

이 행복이 교실 안에서만의 행복이 아니길~

이 행복이 세상에서 함께 누리는 행복이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 소연이의 먹을거리

전경숙 · 경기, 회원

한 주에 두 번 나들이 가는 평동어린이집. 그 덕에 한 주에 한번은 도시락을 싸야 한다. 엄마 이번에는 김밥 싸 줘.

늘 잡곡밥에 아침에 먹던 반찬을 넣어서 보내니까, 소연이가 전날 신신당부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딸이 대견스러워 몇 번은 김밥을 싸줬다. 김밥 재료 사러 갈 때마다 소연이의 요구는 또 있다.

엄마 햄하고 계란도 꼭 넣어 줘.  
계란은 안 돼.  
소창이가 아토피에 계란 알레르기가 심한 덕에 계란은 우리 집 금기식품이 되었다.  
그럼 햄은 꼭 넣어 줘.

자기가 먹고 싶은 김밥 재료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재료선택에 코치를 한다. 그것이 대견스러워서 웬만하면 선택하는 대로 산다. 그런데 햄을 먹으려고 김밥을 싸달라고 하던 소연이가 바뀌었다.

엄마 계란은 몸에 나쁘지? 햄도 몸에 나쁘지? 엄마 이제부터 김밥 쌀 때 햄 넣지마.  
그럼 뭘 넣고 싸.  
밥상을 휘 둘러보더니 김치를 가리킨다. 이런 기쁜 때가...

정말 이것만 넣고 싸도 돼?  
응, 햄은 몸에 나빠.  
그래도 오뎅은 넣어도 되는데.  
그럼 그것도 넣어 줘.

평동어린이집에서 먹을거리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만, 실지로 그전까지는 소연이랑 부단한 신경전을 벌였다. 그럴 때면 내가 게으름을 하게 된다. 소연이 조차도,

누구누구는 참 좋겠다.  
왜?  
그 애네 집에는 냉장고에 과자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단 말이야. 나도 그 집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농담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했다. 왜 아이들을 마음놓고 먹일 먹을거리는 없는 거야. 나도 아이가 좋아하는 것 쌓아놓고 먹이고 싶은데... 나도 애들이 사달라고 하는 대로 사주고 싶은데...왜들 먹는 것에

다가 요상한 것들을 넣어서 먹을 것을 고를 때는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하는지...

슈퍼에 가서 먹을 것을 고를 때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한다. 한쪽에서는 성분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이것은 이것이 들어가서 안 돼, 저것은 저것이 들어가서 안 돼 하면서 끝까지 최선은 다해서 골라보고, 또 한쪽에서는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는데 예라 오늘은 그냥 맛있게 먹어보자 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고...

애들 과자 골라 줄 때마다 어렸을 적 친정엄마 생각을 한다. 돈이 없기도 하고 가게에서 파는 과자가 상대적으로 비쌌기 때문에 간식거리라고 해봐야 감자, 고구마, 옥수수 삶아 주셨고, 밀가루해서 편평 만들어 주시거나 도너츠, 파베기도 만들어 주셨다. 그때 우리 엄마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엇을 만들어주는 날은 너무나 여유롭고 행복했는데... 그런 날은 엄마 옆에서 도너츠도 만들어 보고 파베기도 만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가게에서 파는 과자들도 먹고 싶은 동경이 있었다. 막상 친척 누가 사브레를 사 가지고 와서 먹었을 때는 너무 달아서 한 조각을 다 먹지 못했던 생각이 난다. 그때는 입맛이 그만큼 순해서 그랬겠지. 그런데 요즘은 그 정도 달지 않으면 아이들이 먹지도 않는다. 그래도 내 주변 아이들은 (그래야 평동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간식으로 치고 먹지만 그런 것은 입에도 대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본다. 피자, 치킨, 사이다, 콜라 등등 이런 것들이 간식이겠지... 어떤 집에 놀러갔는데 감자, 고구마를 썰어서 내오면 엄마가 달라 보인다. 참 훌륭하시군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누군가가 그랬다, 먹을거리도 문화라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 문화는 황폐해 있다. 가게에 가서 쉽게 과자를 고르지만, 그 과자 속에 이름도 모르는 첨가물이 우리 아이들의 혀와 코와 눈을 현혹시키고, 그 첨가물이 몸에 들어가서 어떤 나쁜 작용을 하는지 모르는 현실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엄마들이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평동의 먹을거리 교육 이후로 소연이의 질문은 계속된다.

엄마 이거 몸에 좋아 몸에 나빠.

응. 몸에 좋아. 다 먹어도 돼.

이런 대답을 할 시대는 지나갔다.

잠깐 기다려봐. 성분표 좀 보고.

이렇게 대답 할 수 있거만 해도 좋겠다.

모르겠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잖아.

이런 대답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래도 자꾸 관심 갖고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먹은 것이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만들던 도너츠, 파베기가 먹고싶은 것은 그 맛뿐 아니라 그때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었겠지? 그때 먹던 고구마, 감자, 옥수수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의심하지 않고 먹었을 텐데... 그때가 그림다.

## 좋은 그림책 소개

# 그림 옷을 입은 집

고영미 · 경기, 안산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조은수 글/유문조 그림 사계절 출판 정가 8,800원  
대상연령 5세 이상



어린이집에서 흔히 많은 소재인 민화를 중심으로 작은 주제중심 수업을 진행중입니다. 7세반 두 개 반과 방과후반 세 개 반에서 했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알아야한다고 한 달을 넘게 민화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저런 책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림이 잘 그려진 그림책을 주로 보았는데 정승각 선생님의 그림을 비롯해 여러 권의 그림책을 보았습니다. 그중 이 책은 최근에 출판되었기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옷을 입은 집은 아이들에게 좀더 우리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되고 만들어진 창작그림책으로,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의 다섯 색을 중심으로 하며 민화의 주 소재인 여러 가지 자연물을 기하학적인 무늬로 그린 단청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단청이 건축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해충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기까지 하는 기능까지 있다고 하니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요(아이들이 자랑스럽다고 하던걸요).

전공자가 아닌 화가의 2년에 걸친 그림작업이라는 출판사의 자랑이 과장이 아니라는 건 그림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림이 선명하면서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색의 화려함과 그림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즐거이 또한 재미있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게 된 그림책 중의 한 권이 되었습니다.

대강의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 떠난 엄마가 그리워 여행을 나선 아이가 산 속의 낯은 절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꿈속에서 한 스님을 만나 '내 집이 죽어가고 있구나. 내 집을 살려주렴. 부락을 받은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 낯은 절을 청소하고 벽에 푸른 소나무를 한 그루 그려 넣고는 다시 쓰러져 잠이 드는데...

그 소나무에 봉황이 날아와 울고 그 소리 듣고 구름이 한 자락 흩어와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모여 연못 이루고 나비 날아들고... 잠에서 깨어난 아이는 꿈에서 본 것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아이들과 지내다보니 주변의 성인들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놀림을 당하고는 했는데 보육교사라면 해보았음직한 말투【-거라】가 쓰여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구어체의 말

투로 글이 쓰여 술술 잘 익힌다는 점도 맘에 들었습니다.

민화를 가르치며 왜 조상들이 민화를 그렸는지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해주고 보여주었는데 이 그림책 한 권으로도 이해할 만큼은 이해했다고 여겨졌습니다. 아이들과 여러 주제에 대한 그림을 가끔은 그려보는데 마음껏 보고 그려보게 해 준 것이 또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이야기를 듣거나, 해보게 하고 그려보라고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림에 자신 없다고 멀리하던 아이들도 부담 없어하고 소재 하나 하나에 이야기가 있으니 의미를 되새기며 옛날이야기도 해가며 그리고...

아무튼 그림 한 번 원 없이 그린 3주였는데 이 책이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야기도 창작이라는데 꼭 전해 내려오던 옛날 이야기 같아서 더욱 좋았나봅니다. 박물관에 가거나 궁궐나들이를 가셔도 할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왕 내친김에 그림에 관한 그림책을 두 권 더 소개할까 합니다.

어린이 미술관 시리즈 중 「나무를 좋아하는 화가 박수근」과 「박수근 마을에 놀러가요」입니다 (출판사 나무숲, 가격 7220원/ 5600원, 작가 김현숙/ 안성희, 임수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화가라서 구입했던 책인데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7세 정도라면 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괜찮지만요(제가 방과후 아이들과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이해해주실 수 있죠).

이 책은 아이를 옆에 끼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보아야 될꺼예요. 물론 교사가 미리 많이 보아야 하구요. 책에 써 있는 대로 읽어주다가는 다 도망갈지 모르니까요.

「나무를 좋아하는 화가 박수근」은 박수근의 그림과 살아온 이야기를 엮을 수 있고 「박수근 마을에 놀러가요」는 박수근의 그림책을 보고 응용해서 해볼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구성 해놓은 책인데 아이들과 직접 해보니 참 재미있었습니다. 작가가 여러 활동들을 억지스럽지 않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만들어서 좋았습니다. 미술활동 이것저것 해보며 박수근에 대한 관심도 기를 수 있었구요. 그림책을 여러 재미를 위해 보지만 이런 책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미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꺼예요.

한 권씩 사서 해보시고 서로의 경험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재미있지 않겠어요. 교사들끼리 교육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빈곤한데 한번 해보자구요!



## 니들이 통일을 알아?!

이인희 · 본회 정책위원

100만명 규모의 개성공단이 조성된다고 한다. 그동안 이산가족이 여러 차례 상봉을 하고, 금강산 관광과 민간단체들의 교류가 활발해져서 북한에 가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나 북쪽 주민이나 민간인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적어서, 그들과 일상을 나누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에 개성공단이 완공되면 북쪽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늘려주고 그만큼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져서 지난 오랜 세월동안 체제가 다름으로 인해 벌어진 우리 민족의 하나됨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지난 10월에는 북에서 '남북여성통일대회'가 열렸었고, 필자도 그 행사에 참여했었다. 남쪽의 여성단체 회원들과 북쪽의 여맹 등의 회원들이 만나서 토론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만찬을 나누면서, 그들의 생활과 생각하고 있는 것, 결혼과 아이 키우기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집단 유희에 능한 그들에게 신나는 춤과 노래를 배우면서 우리는 정말 한 민족임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처음 듣는 음악도 춤도 결코 낯설지 않았고 우리에게 신명으로 다가왔으니.

요즘은 북쪽의 핵 문제로, 보수층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금강산 관광 반대와 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안보를 이유로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은 '어떤 장애요인이 생긴다고 해서 교류를 중단해야 하는가'이다. 서로가 조건을 내 걸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돌아서고, 다시 만나는 듯 하다가 또 돌아서기를 반복하다가 오늘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분단된 국가에서 살고 있고, 이런 논리대로 하면 우리의 아이들도 여전히 분단된 땅에서 살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6.25를 겪고, 유신정권의 반공교육에 세워된 기성 세대들도 북쪽 땅을 자주 밟아봐야 한다. 그러나, 북쪽에 대한 선입견이 적고, 통일된 땅에서 살아 갈 우리 아이들에게 남북의 기회를 더욱 많이 주어야 한다. 북쪽의 아이들과 많이 만나서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후 평화통일을 하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산가족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상봉하는 모습을 TV로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울어요."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분단된 민족에 대해, 통일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부끄러운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하고 싶다.

"열 번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들려주기보다는, 한 번 분단된 조국의 다른 한 쪽을 보여줘라."

## 옆구리가 시리십니까?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들-

이윤경 · 본회 공동대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왠지 옆구리가 시린 사람들, 누군가 옆에 있어도 한없이 그리운 사람들, 그의 이름을 불러 꽃이 되게 하고 싶은 사람들,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이들을 위해 사랑에 관한 영화 몇 편을 소개하려고 한다.

사랑이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라고 누군가는 말했다지만 남자와 여자는 화성과 금성처럼 서로 다른 생각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연애를 한번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알고 있다. 그런 차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자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는 오해와 실망으로 등을 돌리게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랑을 믿고 사랑하기를 열망하는 까닭은 "사랑"이라는 말이 가진 마법의 힘일 것이다.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영화들은 세월이 좀 지난 것들도 포함하였다. 비디오 케이스의 묶은 먼지를 털어내고 시간의 흔적에도 살아남아 사랑의 온기가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또 청춘남녀의 사랑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보여주는 영화들이다. 젊고 멋진 남녀만 사랑을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때로는 긴 삶을 돌이켜 세상 내 옆의 사람을 들여다보는 그런 사랑도 있을테니까...

### 사랑, 그 하나



문 스트릭

사랑은 달빛을 타고 온다.

달빛은 남자에게 여자를 데려다 준다는 말처럼 온온한 달빛 아래 만날 수 있던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눈다. 37살의 과부 로레타는 별 생각없이 노총각 조니와 결혼을 약속한다. 그러나 정작 사랑의 감정은 그의 동생과 시작되고... 쉐어와 니콜라스 케이지는 로맨스 영화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외모와 캐릭터로 나오지만 그러나 사랑의 감정은 세상 누구에게도 다가 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먼 주어슨 감독/ 쉐어,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 1987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수상.

### 사랑, 그 둘

#### 페기 수 결혼하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도 당신을 선택하겠어요.

지옥의 욕시욕을 만든 감독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가자기하고 따뜻한 영화.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 이혼을 생각하는 페기 수는 고교동창회에 참석했다가 고교시절로 돌아가는 판타지를 경험한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속 썩이는 이 남자를 절대로 선택하지 않으리라 마음 먹었는데...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캐서린 터너,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 1986년

### 사랑, 그 셋

#### 아메리칸 켈트



세월을 끄는 여인들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편은 학교를 마치기 전 마지막 여름을 보내기 위해 캘리포니아 교외의 할머니 집을 방문한다. 할머니의 집은 오랜 시간을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함께 지내 온 여성들의 켈트 모임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다. 완벽한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화두를 놓고 남자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편에게 켈트 모임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삶을 이루어 온 사랑에 대한 꿈, 기쁨, 절망과 고통의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젊은 날을 지나는 7명의 이야기가 세월만큼이나 묵직하다.

조슬린 무어하우스 감독/ 위노라 라이더, 앤 밴크로프트, 클레어 데인즈 출연/ 1996년

### 사랑, 그 넷



첫사랑

모든 것엔 시작이 있다.

한때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불렸던 그 영화. 만화같고 동화같고 추억같은 영화. 그러나 흥행에선 참패를 면치 못했다(그래서 비디오 구하기가 좀 어려움) 해외에서 호평 받으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영화. 이명세 감독의 또 다른 사랑 영화인 "지독한 사랑"과 비교해봐도 좋을 것. 영신은 지방 대학의 미대생이다.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이전과 다른 생활을 기대하지만 별다른 것이 없다. 겨우 극장이나 다방에나 갈 자유가 생겼을 뿐이지 그녀를 사로잡는 무언가가 생활에서 빠져 있다. 영신은 연극반에 들게 되고 두근거림을 느끼게 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

이명세 감독/ 김혜수, 송영창 주연/ 1993년/ 제14회(93년)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김혜수), 제38회(93년) 아태영화제 특별상(이명세) 수상.

## 사랑, 그 다섯



누군가 당신도 모르게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미스터리 로맨스

주인공 막스는 곧 유리엘과 결혼할 사이다. 막스는 도쿄 출장을 앞두고 고객과 만나던 카페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2년 전 막스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던 여인 리자의 모습을 발견한다. 막스는 그녀가 남기고 간 호텔 열쇠를 주워들고 그녀의 흔적을 찾아 도시를 헤맨다.

질 미무니 감독/ 뱀상 카셀, 모니카 벨루치 주연/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합작 영화 / 1996년

## 사랑, 그 여섯



있을 때 잘 해야지.

매력적이고 화려한 중년의 조나단 영거는 자신의 이름을 딴 '영거 스트리지'라는 창고회사를 갖고 있지만 일이라고는 손끝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다. 그 창고회사의 운영은 전적으로 맡고 있는 아내 케니는 모든 업무를 혼자 이끌어 간다.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찾아오는 여자 손님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소일하는 조나단 때문에 속을 끓이던 케니는 어느 날 외도를 목격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하는 조나단 앞에 죽은 아내는 영혼이 되어 나타난다. 한 번 한 번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점점 더 젊고 아름다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조나단의 마음에는 후회와 사랑의 감정이... 퍼시 애플튼은 '바그다드 카페'를 만들었던 그 감독이다.

퍼시 애플튼 감독/ 도널드 서덜랜드, 로리타 데이비치, 브랜든 프레이저, 줄리 델피 출연/ 1993년

## 목소리

## “보육교사 연구수당”에 대하여

염용·편집부

편집자 주: 지난 10월부터 서울시에서는 보육교사들에게 10만원의 연구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두 글은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게시판에서 퍼온 글들입니다. 보육교사 연구수당에 대해 한번쯤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본지에 소개되는 의견이 본회의 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 하나 - 글쓴이: 교사

일단은 서울시에서 우리 보육교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게나마 신경을 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힘이 생기네요.

하지만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아직 너무 적은 봉급을 받고도 말 한마디 못하시는 나이 어린 선생님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영아반 교사는 나라에서 7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원의 영아반 선생님은 50만원도 못 받고 다니신답니다.

제가 알기로 지원금이 원장님 통장으로 들어간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교사 지원금을 원장님 통장으로 넣어주시는지... 어쨌든 말 한마디 못하시는 나이 어린 선생님이나, 대신 항의 한 번 못하는 선배 교사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자니 원 전체의 분위기가 심각해질 것 같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번 수당은 70만원 이상 받으시는 선생님께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영아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중략)

별세부터 일부 원장님께서는 원에 필요한 물품이나 교사 강습회를 자비로 가라고 하십니다. 지원금 명목이 '연구수당'이니 당연히 자비로 충당하라는 것이죠. 잘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 이런 점도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사들은 아직 너무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라도 하소연하고 힘을 얻는 것이겠지요. 그런 교사들의 마음을 원장님이나 학부모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다 너무 너무 착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하시는 교사들을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관심 가져 주세요. 얼마나 힘들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

### 의견 둘 - 글쓴이: 방과후 교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7년째, 방과후 교사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반 배정이며,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교실로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시설장의 권한으로 부득이하게 방과후 교실로 부임을 받아 오전에는 어린이집에서의 보조 업무로, 오후에는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근무합니다.

누가 자기의 업무 외의 일에 매달리며 방과후 교사를 하려고 할까요?

정말 연구수당 미지급이 된다면, 어린이집 업무에 손을 떼도 괜찮을까요?

어린이집과 방과후... 별개였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보육교사회 제7차 정기총회 및 겨울수련회

2003년 1월 25일(토) ~ 26일(일) / 장소 미정

### ◆ 한국보육교사회 지부 정기 총회

#### ■ 경기지부 총회 및 회원수련회

2002년 21일(토) ~ 22일(일) / 장소 미정

#### ■ 서울지부 총회

2002년 12월 7일(토) 오후 4시~7시 / 여성사회교육원 청산교육장

#### ■ 부산지부 총회

2003년 1월 12일(일) / 부산 동래여성개발센터

#### ■ 인천지부 총회

2002년 12월 14일(토) / 장소 미정

• 광주전남지부와 대구지부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대선, 보육으로 구분 짓기

한국보육교사회에서는 이번 대선을 맞이하여 보육과 관련된 각 정당의 공약을 수집·비교하며 같이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가 지향하는 참보육 실현의 실현적인 장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 ■ 주최 한국보육교사회

#### ■ 주요내용 ① 보육 관련 대선 공약 비교 검토 - 이윤경(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

② 생각모으기(의견수렴, 토의)

#### ■ 일시 2002년 12월 3일(화) 저녁 7:30 - 9:30

#### ■ 장소 전진상 교육관 1층 전실(4호선 명동역 8번 출구)

#### ■ 대상 보육의 발전을 바라는 모든 보육교사

#### ■ 참가비 무 료

#### ■ 문의 02) 2275-8505 / 이경녀사무국장(017-708-4101)

## 한국보육교사회 후원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일에 있었던

〈공보육 실현과 보육환경 개선 활동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와 후원행사〉와 후원사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신나는 세상!

부모가 즐거운 세상!

보육교사가 보람찬 세상! 을 위하여.

한일보육교류10주년 기념 행사에 도움을 주신 회원여러분과 여러 단체, 그리고 당일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을 밑거름으로 앞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아이들을 위한 보육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주변의 이는 사람에게 추천하시고자 하는

회원, 자료회원 여러분은 받으실 분의 주소와 이름, 연락처를

중앙 사무국에 알려주십시오.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육교사 취업특강

서울시보육정보센터에서 예비 보육교사를 위하여 면접시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같은 주제로 2회 진행하므로 가능한 날짜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특강 신청은 서울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날짜: 2002년 12월 4일(수), 5일(목) 이들 중 하루 택일 시간: 13:00-16:00

장소: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교육실

대상: 예비 보육교사

내용: 1. 이미지 메이킹

2. 자기 소개법

3. 인사 예절

4. 면접시 복장 등

문의: (02) 772-9814-9

신청: <http://children.seoul.or.kr>

##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정기강좌

서울시보육정보센터에서는 오감을 통한 조형 놀이로 [과일을 이용한 프로젝트 활동] 강좌를 개편합니다.

강사: 양은희(아래동무 어린이집 원장)

대상: 보육시설 종사자

일시: 2002년 12월 3일 화요일

장소: 정보센터 교육실

시간: 14:00-17:00

내용:

1. 사전활동

과일이 뭐예요?

- 과일의 느낌과 소리 찾아보기

- 이름과 종류 알아보기

- 크기, 색, 계절, 원산지, 열리는 곳에 따라 분류

하기

과일을 사러가요

2. 본 활동

색을 찾아보아요

냄새를 그려보아요

맛은 어떤 모양일까요?

과일의 맛과 색과 냄새를 종이로 만들어봐요

확대경 안에 신비한 나라로 오세요

나도 스티커 만들 수 있어요

과일리스로 꾸며요

콜라주로 만든 과일나라로 오세요

3. 느낌 나누기

전시회

준비물:

- 재료비: 1인당 2,000원(조별 과일 구입용)

- 과일: 마음에 드는 과일 3종류

- 스케치북, 종합장, 확대경(좋은 것으로), 연필, 피스

텔, 포스터 물감, 붓, 물통, 양면테이프(넓은 것), 가위,

칼, 싸인펜, 색연필, 글판지(여러가지 색), 그루건, 과

도, 일회용접시 3개, 신문지 3장, 찰흙 3개

• 재료비 및 준비물이 많습니다. 반드시 지참하여 원활하게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강좌는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홈페이지내에서 미리 접수하여야 참석이 가능합니다.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포럼

"공동육아 장애아동 통합교육 그 현실과 전망"

• 일시: 2002년 11월 30일(토) 오후 3시-6시

• 장소: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기조발제

장애아 통합교육의 의미 / 김수진(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발제1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통합교육 사례 / 이말순(부천산 어린이집 원장)

□발제 2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한 공동육아 사례 / 이경희(인천 협한어린이집 조합원교사)

□발제 3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부분 통합교육 / 김미애(과천 열리는어린이집 원장)

□발제 4

공동육아 장애아동 통합교육의 현황 / 이송지(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조합부장)

□발제 5

특수교육교사가 보는 공동육아의 장애아동 통합교육 / 박강희(성 베드로학교 교사)

□발제 6

공동육아의 장애아동 통합 교육의 전망 / 송경선(성심어린이집 통합교사)

## 연극 "도깨비이야기"

마음 속 도깨비를 불러내는 신동방통 이야기 잔치

(관극방법과 호랑이)에 이은 극단 사다리의 놀이연극 이야기 친구는 "도깨비"입니다. 엉뚱하고 장난기 가득하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하는 친근한 도깨비. 우리 마음 속에는 방방이만 있으면 무엇이든 똑딱! 가능한 도깨비가 숨어 있습니다. 자유로운 상상과 재미있는 생각들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도깨비를 불러 일으켜 보세요.

공연기간: 2002년 11월 1일(금)-12월 1일(일)

[11월 4일(월), 18일(월) 공연 없음]

평일 11시(단체), 2시, 4시/토, 일, 공휴일 12시, 2시, 4시

공연장소: 구리 LG아동극장

입장료: 어른, 어린이 4,000원 (사다리 회원 3,500원)

공연문의: 구리 LG아동극장 031-550-7580

극단 사다리 02-499-3487

주최: 극단 사다리

• 구리 LG아동극장은 사전에 전화예매를 받지 않습니다. 극장으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

• 단체문의와 예약은 LG구리극장에서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tel. 031-550-7580)

## 중앙소식

- 9월 2일 정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 9월 5일 어린이집의 아동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교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 9월 6일-8일 일본 성에원의 장애통합보육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윤경 공동대표가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 9월 7일 3시 서울지부 주관으로 양성평등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보육교사 의식개선 워크샵이 청산교육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보육교사 30여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서정은 유정은 선생님께서 강사로 수고하셨습니다.
- 9월 9일 민주당 여성국에서 주최한 여성예산 관련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육예산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 9월 9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서울시보육시설 연합회와 서울시 어린이집·놀이방 연합회를 만나 대선보육정책공약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9월 10일 여연 이사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9월 10일 한국여성연구소가 진행하는 자활후견기관여성인력개발 프로젝트 자문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9월 11일 서울시보육위원회 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어린이집과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재위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 9월 14일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9월 14일 10시 교육위원회 4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 9월 14일 목포지회(준)주관으로 양성평등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보육교사 의식개선 워크샵이 카톨릭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목포와 인근지역 보육교사 20여명이 참석하셨습니다.
- 9월 14일 교육위원회 4차회의가 있었습니다.
- 9월 16일 부산지부에서 주최한 지역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회원교육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강의하였습니다.
- 9월 17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주최한 보육정책개발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9월 24일 정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보육교사상당사례에 대한 검토와 관련 노동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 9월 25일 CBS 라디오 "함께 사는 세상"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초대손님으로 참석하여 보육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9월 28일 3시 광주·전남지부주관으로 양성평등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보육교사 의식개선 워크샵이 여성발전센터 2층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여연과 한국보육교사회 공동주최로 "각 정당 대선 보육정책공약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 10월 7일 프레젠타에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주최한 보육정책 심포지움 "신보육정책: 잠나무플랜"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윤경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10월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육실

- 태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10월 11일 조직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의 조직전망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 10월 15일 - 17일까지 2002년 남북여성통일대회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회에서는 이기원 공동대표와 이인희 인천지부장, 김명선 부산지부장, 이정녀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10월 16일 금융노련 여성국장 모임에 이윤경 공동대표와 이선주 교육부장이 참석하여 보육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10월 21일 KBS 라디오에서 이윤경 공동대표와 보육문제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 10월 25일 도봉구청에서 주최하는 도봉구 보육교사 교육연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바람직한 보육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 10월 26일 제1차 총준위가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2003년 총회 준비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 10월 28일 국회여성위원회 초청 여성단체장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10월 28일 일본보육사의 한국보육연수 환영식과 본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올해 보육연수를 위해 서울에 4명, 광주에 3명을 파견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호에 게시하겠습니다.
- 10월 29일 한국여성노동자회의회에서 주

최한 "모성보호사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10월 31일 보육시설의 아동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교사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서울에서 연수 중인 일본의 보육사들과 보육시설에서의 아동 건강관리에 대한 작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지부소식

〈서울지부〉

- 10월 19일에는 "양성평등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문화제"를 대학로에서 가졌습니다.
- 어깨동무 어린이집 아이들의 풍물 자랑, 외발 차전거 타기 개인기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보여주었지요. 우리아이들이 자기의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양성평등문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거리문화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지부의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중장기 계획을 회원들이 함께 고민하는 '서울지부 미래 모임(가칭)'이 꾸러졌습니다. 오랫동안 서울지부와 함께 해온 선배 교사들과 새로 활동을 시작한 후배교사들이 함께 합니다. 건강한 지부의 미래상을 고민하고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한일보육교류 10주년을 맞아 일본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공동육아 형태의 행복한 어린이집에 두 분, 장애통합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이화 어린이집에 두 분이 오셔서 2주 동안 다양한 한국의 보육 현장을 경험하고 가

했습니다. 11월 2일에는 서울지부 회원과 일본 교육교사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한일 보육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일일주점을 잘 마쳤습니다. 11월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서울지부 통합 마기 MT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 7일 서울지부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부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인천지부〉

10월 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양성평등 육아문화 확산을 위한 인천 거리문화제가 있었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로 성공리에 잘 마쳤습니다.

10월 5일 양성평등을 위한 보육교사 의식개선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여성 노동자 회의 2층에서 3~5시까지 20여명의 보육교사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10월 19일 인천 회원의 날은 회원들의 일정관계로 쉬었습니다. 11월 회원의 날은 16일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 〈경기지부〉

양성평등 거리문화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자전거 홍보와 그림그리기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구요, 양성평등과 관련한 아이들의 설문조사도 반응 좋았습니다. (10월 13일)

11월 16일 안산의 경실련 강당에서 양성평등 교사교육이 대단원의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박부자 선생님의 전달래 농장에서 초등학생

들을 대상으로한천연염색과 들꽃을 이용한 액자만들기가 있었습니다 (10월 9일, 12일)

수원의 지연 선생님이 수원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편한으셔서 당분간은 서울과 수원을 왔다갔다 하겠지만요.

전경숙 선생님의 명강의로 수원 화성성곽돌기 프로그램을 진행중입니다. 평등 아이들과 안산의 방과후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주전남지부〉

11월 1일, 한일보육교류 10주년 기념 광주지역 자체 행사로 '일본 남자 보육교사 사례보고회'를 잘 치렀습니다. 30여명의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들, 그 밖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월 월례회는 12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월례회 내용은 회원인 김세정 선생님께서 한 시간 정도의 놀이치로 강의를 준비 하기로 했구요, 그 밖에 시간은 맛난 거 먹으면서 신나게 수다를 떨기로 했지요. 장소는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실개천'이라는 식당입니다.

#### 〈부산지부〉

녹색실천어린이집 만들기 교사를 위한 생태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9월26일 생태교육1 강좌 (어메니타 과학교육)

10월 4일 생태교육 2강좌 반쪽이 공방과 함께한 자연물놀이감 (나무벌레 만들기) 진행

10월18일 생태교육 3강좌 세시풍속과 절기에 따른 (어린이집 건강먹거리 만들기)

부산보육교사회 정책위가 꾸려졌습니다(정책위원: 김명선·박찬주·나선일·박은영)

10월 1일 정책위 2차 회의

10월31일 정책위 3차 회의

10월 5일 동래산성에서 확대운영위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운영위와 집행간부 8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반기 사업점검과 2003년 사업에 대한 주요점검과제들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후원사업을 열심히 벌이고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 부모회에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셨고, 연대단체들(부산여연, 부산연합등)과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11월10일 어린이집 교사와 부모를 위한 (전우도 갯벌, 겨울철새 생태여행)에 어린이집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대거 참가를 했습니다. 2002년 부산어린이 책잔치를 끝내고 어린이 전문서점 책놀이터에서 행사에 지원된 책들을 기증해주셨습니다.

(호주제게지 부산시민운동본부)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초청 여성정책간담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성매매방지법 토론회에 참가하였습니다.

10월16~17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남북여성통일대회)에 부산을 대표하여 김명선 지부장이 참가했습니다.

10월 26일 양성평등육아문화 형성을 위한 보육교사의식개선 워크샵을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5층교육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7일에는 양성평등한 육아문화확산을 위한 거리문화제를 부산어린이대공원에 마련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일보육교류10주년행사에 일본연수참가자였던 박찬주, 김은령선생님이 참가했습니다.

회원교육으로 그림책전문소모임의 활동결과 발표회가 11월 15일 있습니다.

녹색실천어린이집 만들기 결과물 전시 및 공모전 수상식이 11월 15일 토폰어린이집 5층 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사람과 사람들

##### 축하합니다

10월 20일 인천 이경미 선생님의 이쁜 딸래미 정송희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11월 10일 인천 보육교사회 전직 회원이었던 박선미 선생님이 결혼합니다.

광주전남지부의 김찬숙 선생님이 11월 24일 일요일 12시 30분 풍암동 성당에서, 박재희 선생님이 12월 7일 3시 목포 윤송 웨딩홀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리십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부산지부 박희순 선생님이 단칸방에서 17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 새로운 출발에 용원의 박수들...

서울의 오윤정 선생님이 일터를 옮겼습니다. 새로운 아이들과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시다고 하는데... 새로운 출발을 환영합니다.

11월 9일 인천 생협 예술 어린이집의 개원잔치가 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부산지부 이미정 선생님의 도장가게가 성업중입니다. 도장 파실 분 부산사무실로 연락하세요!

부산의 피노키오어린이집이 이사를 갔습니

다. 남산동에서 청룡동(범어사쪽)으로 새단장했습니다.

#### 복직하십니다

3개월 된 어린 딸을 두고 광주전남의 이정미 선생님이 도담도담어린이집에 다시 출근을 하십니다. 이준미 선생님이 몸이 많이 안 좋은 편제로 이정미 선생님이 나오셔서 일하게 되는데요. 아픈 사람은 빠른 쾌유를, 새롭게 일을 시작한 사람은 즐겁게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회비를 내셨습니다. (02년 10월말 기준입니다.)

〈서울지부〉 10월 일부  
〈인천지부〉 10월 일부  
〈경기지부〉 10월 일부  
〈부산지부〉 8월 완납  
〈광주전남지부〉 6월 완납  
〈평생회원〉  
최순옥 10차 10만원  
〈회원회비〉  
서은희 2만원, 하미선 2만원, 조선경 2만원, 이성혜 2만원  
〈자료회원〉  
김영옥, 성산사회복지관, 박정희  
〈후원해 주셨습니다.〉  
원명순 2만원, 김종원 3만원, 장성일 2만원, 류호선 10만원, 엄소현 2만원, 백선희 2만원, 임태형 3만원, 오영숙 2만원

#### 본외 11·12월 월행일지

11월 2일

보육정책위원회

3일

확대집행위

5일

건강교사모임

7일

양성평등의식개선 보육교사 워크샵-서울

10일

확대집행위

14일

제5차 운영위원회

14일

교육위원회

14일

양성평등의식개선 보육교사 워크샵-목포

24일

보육정책위원회

26일

양성평등의식개선 보육교사 워크샵-광주

30일

각정당 대선 보육정책공약 토론회

12월 9일

확대집행위

11일

보육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확대연석회의

23일

확대집행위

26일

제1차 총준위

28일

일본보육사와의 간담회

31일

건강교사모임

#### 편집부에서

‘어린이와 건강’은 지면관계상 이번호에 쉽니다.

이번호 편집은 이경녀사무국장을 대신해 황미혜 보육정책위원이 맡았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접하는 일이라 무척이나 낯설고 어색하여 혹시 독자분들께도 그런 어색함이 전해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지난호가 많이 늦어진데 반성하면서 이번호는 제대로 받아보실 수 있게 하자고 그렇게 맘을 다잡았건만.... 사람일이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내뉘려 변명하기엔 여전히 죄송함 뿐이네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인 거 아시죠? 아직 후보별로 구체적인 보육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각 대선후보진영의 보육정책을 분석·평가하여 여러분께 소개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정책분석 능력을 믿습니다. 복지대통령, 참보육공보육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 대통령에게 꼭 표를 던집니다!!!



| 이런 일을 합니다 |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 여기에 있습니다

####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 e-mail:kdta@chollian.net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wawbest@jinbo.net